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03 12
2010. December



부산항 빛축제

풍경이든 여행!
초원국제여행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CHO WON
TRAVEL
AGENCY INC.



(株)草原國際旅行社
CHO WON TRAVEL AGENCY INC.

代表理事 柳 然 國
會 長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26(호우회관 2층) TEL. 051)467-5111 FAX.051)462-1132



낙동강 끝자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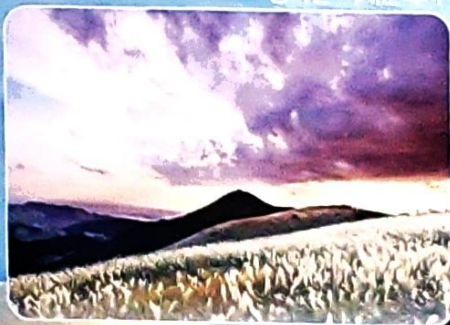
부산사하구로

오십시오!

꿈을 꾸는 마추픽추 김천등 문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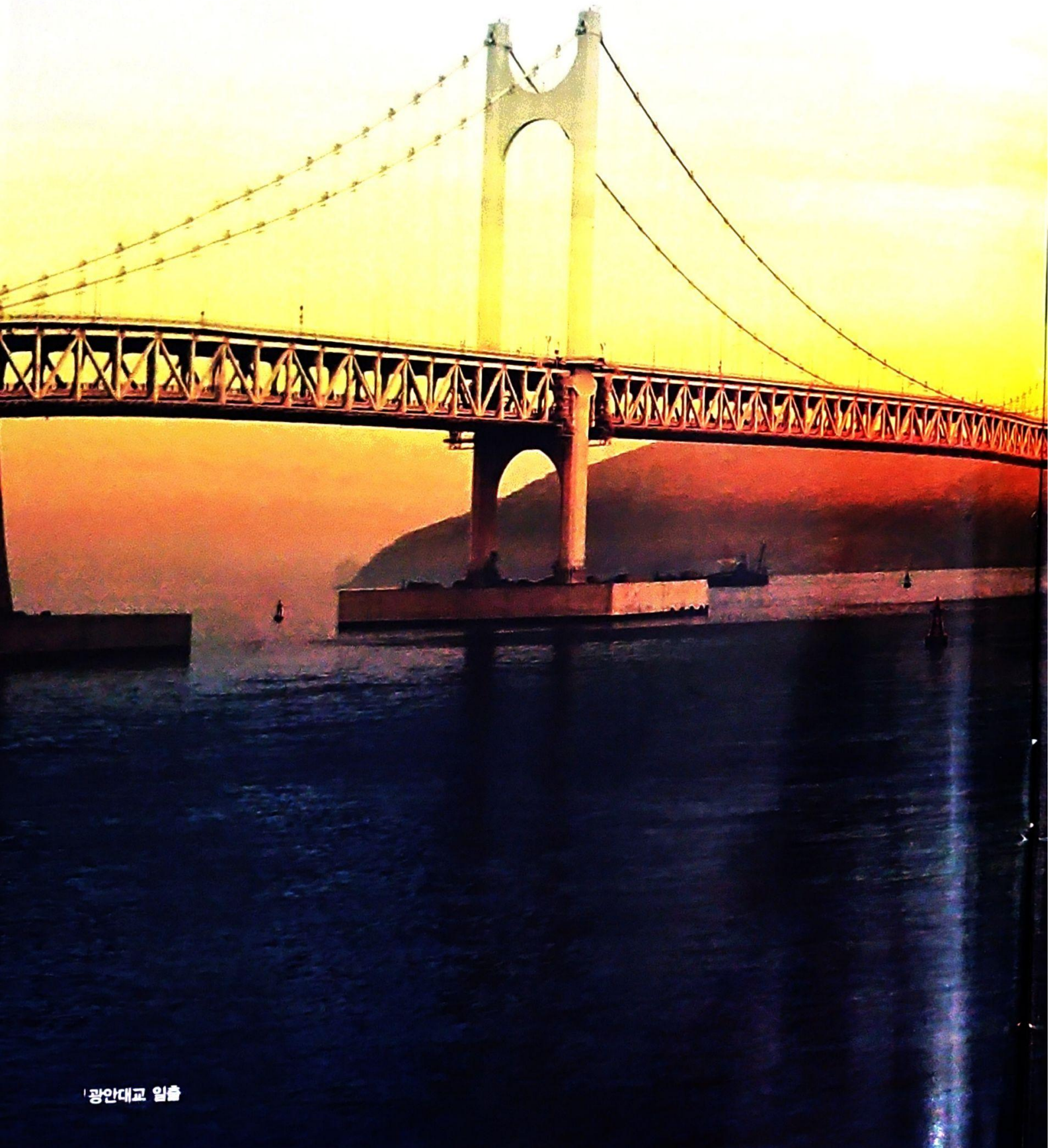
승화산 역사유라지



다대포 해수욕장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 광안대교 일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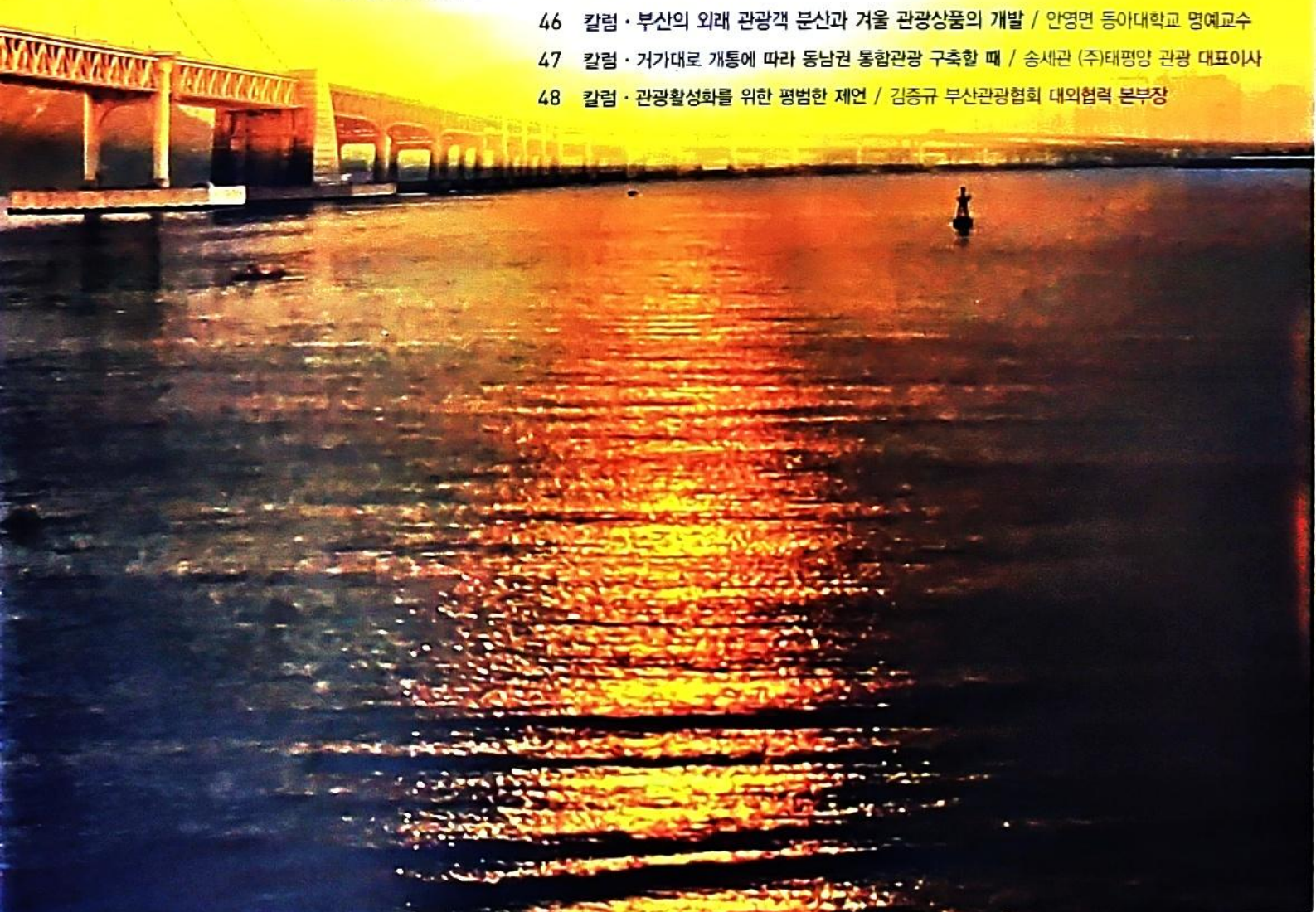
발행·편집인 이근후
 편집위원 손해식, 이광규, 김종규, 이해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심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0년 12월 27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70-95 나산리초 202
 TEL. (051)206-7500 FAX. (051)205-7767
 E-mail. btjbusan@hanamil.net
 편집·디자인 브문디자인 (051)469-3563

*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관광 발행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매출)



표지_ 부산항 빛축제

- 06 부산중구청 관광개발 청사진
- 11 부산 울산 경남, 광역관광협력 포럼 개최
- 12 제1회 부산항 빛축제 화려하게 펼쳐다
- 14 부산, 바다·강 해양레포츠 시설 확충
- 16 북항재개발 국제여객터미널에 신재생에너지 도입
- 17 용호만 부두 관광유람선 전진기지로 조성
- 20 창조도시 사하, 해양관광도시로
- 22 광안리 해변, 문화 여가 친수공간으로 변신
- 24 부산이야기
- 27 부산항 통해 입국한 크루즈승객 증가
- 28 도자기 체험 관광
- 30 꿈의 바닷길 거가대로 개통
- 3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공제영업보증금 증액에 따른 기준 알림
- 36 부산 시티버스 운행코스
- 38 호텔가 소식
- 44 낙동강 하구 을숙도 겨울 철새
- 45 창녕 우포늪 겨울철새
- 46 칼럼·부산의 외래 관광객 분산과 겨울 관광상품의 개발 / 안영면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 47 칼럼·거가대로 개통에 따라 동남권 통합관광 구축할 때 / 송세관 (주)태평양 관광 대표이사
- 48 칼럼·관광활성화를 위한 평범한 제언 / 김종규 부산관광협회 대외협력 본부장





부산중구 관광개발 청사진

**김은숙 구청장과의 인터뷰

중구의 관광 개발 청사진은?

부산 중구는 부산항 개항이전부터 조선과 일본의 외교와 무역 창구였던 초량왜관이 소재하였던 곳이며, 1876년 부산항이 개항되면서 새로운 서구 문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전초기지였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문화유산인 근대역사관과 백산기념관 그리고 8.15광복과 6.25한국전쟁으로 인한 귀환 동포와 피난민들의 애환과 향수가 시린 영도다리와 40계단, 보수동 책방골목, 호국의 넋이 깃든 충혼탑, 근·현대기 민주항쟁 정신을 기리는 민주공원

보수동 책방골목



등 곳곳에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보고입니다.

지난 11월 KTX 2단계 개통과 거가 대교 개통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된 우리 중구는 부산자갈치 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 보수동 책방골목 축제, 평북로



김 은 숙(金恩淑) 중구청장

- 1945. 4. 11 경남 고성군 출생
- 부산여자중 · 고등학교 졸업(64년)
-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68년)
-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 경북약국 대표(남포동 소재)
- 부산시 가정복지국장
- 부산시 초대 보건복지여성국장
- 부산시 여약사회 회장
- 부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민선5대 부산시 중구청장 취임(2007.12.20)
- 민선6대 부산시 중구청장 취임(2010.7.1)

패션아트페스티벌, 광복로 차없는 거리 정기공연, 대표적 겨울 축제인 부산 크리스마스트리축제 등 계절별로 다양한 문화축제 개최와 다함께 즐기는 주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확대하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매력적인 관광특구 중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부산롯데타운 건립, 자갈치 수산 관광 단지 조성, 북항 재개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미래 비전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 중구를 관광중심으로 특성화 하여 인구유입과 관광객 증가 등 우리 구를 새롭게 바꾸어 놓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중구 용두산 자갈치 관광 특구의 활성화 방안은?

중구 전체 면적의 38%에 달하는 용두산 · 자갈치관광특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건립, 인도심 문화장 작공간 “또따또가” 개소, 오픈형 시티투어 광복로 운행, 광복로 차없는 거리 정착 등 많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관광안내소, 관광안내관 정비, 관광특구 홍보 동영상 및 리후렛 등 제작, 중국 광저우 및 일본 후쿠오카 현장 설명회 개최, 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TPO) 가입 등 관광수용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향후 발전 계획으로는 개별관광객(FIT)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건립, 자갈치 친수공간 유람선 선착장 활용, 부산지역 재학 외국인 유학생 관광설명회 개최, 음식점 다국어 전자메뉴판 시범 운영, 특성화된 축제 문화행사 육성, 국제시장 간신로 야간경관 개선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40계단 역사문화 테마거리 조성 등 20대 과제 4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구 병칭에 걸맞



게 용두산 공원, 백산기념관, 부산근대역사관 등 다양한 역사 · 문화유산과 롯데백화점, 광복로,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등 쇼핑 관광명소를 우리 구의 대표 축제인 부산자갈치축제, 광복로문화 축제, 부산크리스마스트리축제, 부산항 빛의 축제 등과 연계하여

“ 현재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부산롯데타운 건립, 자갈치 수산관광 단지 조성, 북항 재개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미래 비전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 중구를 관광중심으로 특성화 하여 인구유입과 관광객 증가 등 우리 구를 새롭게 바꾸어 놓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조선문인협회

원스톱 관광·문화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중구에서만 접할 수 있는 쇼핑과 문화를 접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테마별 문화관광 특화 방안은?

40계단 역사테마거리 조성

40계단 역사테마거리조성사업은 중부경찰서와 광복로 입구까지의 거리를 3가지 테마존으로 구성하고 부산정거장거리, 문인의 거리, 한일우호의 거리로 설정하여 거리별로 특성화하고 56개 골목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하고 테마를 부여하여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정거장거리는 중부경찰서에서 40계단을 지나 제일은행까지의 구간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40계단문화관광테마거리의 컨셉과 연계하여 피난민의 삶의 애환을 나타낼 수 있는 1950~1960년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며, 문인의 거리는 대청로 금생약국에서 부산호텔에 이르는 구간으로 전쟁 전·후 활동하였던 문인들과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던 지역 특성

을 살려 토속음식집, 주점, 전통찻집을 통한 예술인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한일우호의 거리는 부산호텔에서 광복로 입구까지로 관수가, 수문 등 초량역의 흔적과 한일간의 교류와 우호의 역사를 거리에 구현하여 일관 관광객의 방문 동기를 유발하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갈치 수산관광 단지 조성

전국 대표 수산물시장인 자갈치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초대형 Seafood 센터, 지구촌 먹거리 타운, 건어물백화점 등 중구에서만 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수산상권과 수산관련 전문백화점, 수산관련 도서관, 세계해양생물전시관, 수산물 아카데미하우스 설치 등 자갈치수산관광단지로 조성하여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관광문화형시장으로 조성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갈치 수산관광 단지를 현대풍의 롯데백화점 광복점 고전풍의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삶의 애환이 살아 숨쉬는 자갈치 시장 고유의 전통문화를 관광명소화하여 중구의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뜨따뜨가

걷고 싶은 대청로 조성

부산의 근대 역사물이 산재해 있고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부산우체국에서 서구 부민동 임시수도기념관까지의 대청로 및 주변 도로를 부산시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대표 상징가로인 광화문과 같은 개념으로 부산상징가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산상징가로는 문화의 거리, 희망의 거리, 젊음의 거리 등 3개 구간으로 나뉘고 구간별 주제가 있는 특화거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주변의 40계단 역사테마거리, 광복로 간관시범가로, 백산기념관 등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초량왜관 복원과 함께 일본인거리(가칭)도 조성할 계획이고, 희망의 거리에는 인공폭포와 광장을 설치하고 책방골목과 부산근대역사관 등을 테마로 부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망하는 상징물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젊음의 거리에는 보수천 복원과 동아대 부민캠퍼스와 연계한 광장과 공원 등을 조성해 젊은이들이 찾고 싶은 공간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자갈치축제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트 플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트플랜 사업인 영주동 현수식 모노레일 설치, 산복도로 역사박물관 건립, 망양로 커뮤니티 문화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산복도로 주변의 주차난 해소 및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청동 산복도로 일원에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을 건립하고 또 북까페와 진방대갈 설치하여 산복도로 일원을 생활과 문화, 관광의 명품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자갈치시장



강동시장



미포광장

북항 재개발 사업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수상 택시·버스터미널 등 해상교통 터미널, 국제크루즈터미널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항 자갈치해안~영도대교~연안여객터미널~국제여객부두~북항 등을 잇는 연안 일원의 각종 구조물도 수변공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재정비하겠으며, 스카이라인의 통일, 색채의 조화 등 항만 어메니티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경관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관광부활과 외래 관광객 유치증대 방안에 대해?

우리 구는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이 소재하고 있는 동북아의 관문이며, 경부선 종착역인 부산역이 인접해 있고 지하철 1호선이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등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한국은행 부산본부, 금융결제원 부산본부 등 주요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이 밀집하여 행정·무역·금융의 중심지이며, 자

갈치시장, 국제시장, 건어물 시장 등 대형 전통 시장과, 광복동, 남포동, 중앙동을 중심으로 유통 상가 및 관련업체 등이 밀집하고 있어 주간에는 1일 유통인구 60만 명이 모이는 부산의 대표적 상권의 중심지입니다.

대표적인 수산관광지인 자갈치에는 1,700억원 가량을 투입해 2013년까지 자갈치시장 동행 관광위판장 건립, 신동아시장 재징비 등을 통해 명품 관광단지로 개발하겠으며, 수변에는 크루즈선착장을 만들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40개단 주변 기리는 95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역사테마거리로 조성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롯데타운 건립, 자갈치 수산관광단지 조성, 북항 재개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미래 비전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지난 11월 KTX 2단계 개통과 기가 대교 개통등 교통망 확충이 완성되면 중구를 포함한 시구와 영도구 등 부산 원도심의 상권과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의 1번지였던 원도심 중구를 다시 찾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손해식 편집위원

부산 울산 경남, 광역관광협력 포럼 개최

부산·울산·경남도가 KTX, 거가대로 개통에 따른 동남권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지난 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 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가 주최하고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KTX,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부산발전연구원 최도석 선임연구원은 제1주제로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 방안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효제 책임연구원이 제2주제로 ▲동남권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광협력체계를, 경남발전연구원 김태영 책임연구원이 제3주제로 ▲광역관광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동남권 관광상품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는 조명환 동아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해 김문연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김

보중 팬스타 크루즈 부장, 김비태 부산관광컨벤션유로 사무처장, 박철범 한국관광공사 영남협력단 차장, 인범용 동의대학교 국제관광학과 교수, 왕병구 선진관광여행사 대표, 하현덕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영업팀 차장이 참석했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동남권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는데 합의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동남권 광역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KTX,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동남권 관광협력 방안 및 광역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참석자들은 경남과 부산이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관광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 도시철도 4호선, 내년 1월부터 시운전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4호선(미남로터리~안평 12.7km)에 대해 내년 1월부터 60일간 시운전을 거쳐 개통일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운전에서 안전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4호선은 내년 3월말이나 4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4호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토목, 궤도, 건축 전기, 신호, 통신 모든 분야에 평균 9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교통공사는 건설이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분야별 예비품을 확보하는 한편 각종 장비운용에 대한 매뉴얼 작성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 2월에 착공한 4호선 건설에는 총 사업비 1조2천 489억원이 투입됐으며, 미남 로터리에서 기장군 철마면 안평 기지간 12.7km(지하7.2km, 고가5.5km)구간에는 정거장 14곳, 차량기지 1곳, 환승시설 2곳을 갖췄다.

4호선은 특히 국내 최초로 기관사 없이 운행되는 완전 무

인자동 운행방식으로 운용된다. 종합사령실에서 운행상황과 차량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추진제어장치, 차량종합제어장치(TCMS)등의 안전장치를 통해 차량을 제어한다.



도시철도4호선



제1회 부산항 빛축제, 화려하게 펼쳐다

'항구에 빛을 나르다' 이 빛은 희망, 미래의 빛이면서 부산의 빛, 창조의 빛, 예술의 빛, 바다의 빛을 주제로 한 제1회 부산항, 빛축제가 개최됐다.

지난 18일부터(내년 1월 9일 까지) 부산항 남항을 끼고 있는 중구, 서구, 영도구 등 원도심 지역의 미래, 희망의 새 빛으로 부흥을 알리는 뱃고동을 울리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자갈치시장 매립지 주무대와 남항 일원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선박 퍼레이드이다 빛과 물결, 빛과 소리를

동시에 보여줄 세계 최초의 레이저 전자현악 그룹 '레이저 디바'의 공연, 부산항의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한 '수상 멀티미디어쇼', 레이저 빛줄기로 리듬체조를 하는 듯한 레이저맨 퍼포먼스, 포미닛·실윤도 등의 축하 공연, 봉래산·천마산·용두산에서 동시에 공중으로 레이저를 쏘아 올리는 삼각 레이저 빔 쇼 등이 펼쳐졌다.

또 '빛 작품'은 중, 서, 영도구에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였는데 특히 중구는 용두산 부산타워를 아프리카 토인의 긴 목 장식물



처럼 보이게 하는 빛 연출을 하고 자갈치 주무대 주변에 설치된 파빌리온에서 국내의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작품 18점을 전시했다. 서구의 경우 송도해수욕장에 외계인 모습 등 국내외 작가와 시민 공모 수상작 등 28점을 전시했고, 영도구는 거리에 대형 작품 4개를 전시했다.

중구 피프광장-신동아회센터-자갈치회센터 구간 도로 위로 쏟아지는 은하수 하늘 조명이 설치되고 영도경찰서와 소방서 사이 거리 가로수에 울긋불긋 조명등이 설치됐다. 이들 지역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동네 주변 가로에 여러 가지 예쁜 조명등을 달아 꾸미는 '참여의 빛길'도 선보였다. ▲가족소원의 빛길(롯데백화점-자갈치역) ▲연인의 빛길(피프거리-서구청 앞) ▲아이의 길(영도다리 구간) 등 12곳에 이 빛길이 조성됐다.

자갈치시장 주변의 주무대에선 축제기간 중 주말마다 라이브, 문화공연, 참여 이벤트 등이 이어졌고, 칵테일쇼·저글링쇼·댄스페스티벌에서부터 7080 통기타 공연, 색소폰 공연 등 이곳서 열리는 행사는 다채로웠다. 또 3개구마다 각 1곳씩의 빛 이벤트 광장을 두고 각종 행사를 유치했으며, 밤을 새우며 퍼포먼스·공연 등을 즐기는 백야 빛축제 등도 열렸다.

이 축제 조직위측은 "바다와 빛, 하늘이 어우러진 이 축제는 잊을 수 없는 추억과 미래를 향한 활력을 선물할 것"이라며 조직위원회(위원장 조명환 동아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부산에

선 처음으로 열리는 빛을 소재로 한 축

제"라며 "침체된 3개구 원도심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 예술의 질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축제기간 중에는 광복로에서 제2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축제도 개최되고 있어 연말, 연시를 맞아 중구를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이번 부산항 빛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부산자갈치축제, 부산국제영화제와 더불어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효영 기자 tourbusan@daum.net

부산, 바다 · 강 해양레포츠 시설 확충

도시 품격, 삶의 질, 관광자원 등으로 세계인이 즐겨 찾는 해양레포츠 허브도시로 우뚝 설 것

부산 연안일대가 해양레포츠를 위한 마리나 시설이 대폭 들어선다. 부산시는 최근 '해양레포츠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밝힌 부산시의 '해양레포츠 활성화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세계인이 즐겨 찾는 해양레포츠 허브도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 수요창출 · 관련 제도 및 규제 개선 등 6대 역점실천 전략을 설정하고 42개 사업을 실천 과제로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레포츠 인프라 구축

동쪽 송정해수욕장에서부터 해운대 우동항 · 동백섬 운촌항 · 마린시티 요트경기장, 광안리 · 남천항, 북항, 영도구 동삼동 혁신 도시, 사하구 다대포 등지까지 부산 앞바다 전역에 수상 레저 기구 계류 ·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마리나 시설들을 만든다. 예컨대, 북항의 수변공원과 북항방파제 사이, 기존 국제여객 부두 2곳 등에 레저용 보트 17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를 건설하는 식이다.

또 해운대구 우동항에는 2만6276m(육지1만2156m, 해상면적 1만4120m)규모, 남구 백운포에는 약 4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마

리나를 각각 개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영만 마린시티 요트경기장의 경우 수변공원을 겸한 고급 리조트형 마리나로 재개발,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만든다는 것이 부산시의 구상이다.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

마리나 시설만 잔뜩 지어 놓는다고 '물 레포츠의 천국' '한국 수도'가 되지는 않는다. 지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매년 2만여명의 시민들에게 해양레포츠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매년 4-10월 서낙동강-송정해수욕장 일대 8개 지역에서 11개 종목(요트,

66 마린나 시설만 진척 지어 놓는다고 '물 레포츠의 천국' 한국의 수심이 되지는 않는다. 지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매년 2만여명의 시민들에게 해양 레포츠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99



카누, 윈드서핑, 래프팅, 조성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또 이들 종목이 망라된 부산마린스포츠대회를 매년 개최, 지역의 대표적 종합해양레포츠 축제로 브랜드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국제서핑대회', '세계이자매치레이스요트대회', '부산컵 및 아이랑 요트대회', '2000세계요트연맹 연차회의', '봄보 대양 요트대회', '쿠이비롱퍼시픽시리즈' 등 굵직굵직한 대회와 행사 등이다.

강 레포츠 활성화

부산엔 낙동강, 수영강 등 강도 있다. 낙동강은 '강스포츠 명소화' 하고 수영강은 '강스포츠 관광자원화' 한다는 이원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게 부산시의 계획이다. 낙동강의 경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 추진되는데 회명·강서 조정 및 카누경기장·삼락·대저·둔치도 등 5개 지구에 각 1만~1만5000㎡ 규모의 개류장과 각종 지원시설들이 조성된다.

음속도에도 요트 등의 개류장과 야외 수영장이 만들어진다. 또 시민카누 마라톤대회, 장보고기 전국 조정대회, 드래곤보트대의

등강 레포츠 대회도 개최된다.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와 향후 계획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안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를 구축한 데 이어 요트·모터보트·개류장 등 마린나 관련 제품 완성품·부품업체·연구기관들을 위한 마린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마린나 산업단지는 50만5000㎡ 규모로 구상 중인데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또 수상레저기구 임대업 및 교육활동 자유화,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조정 등 과도한 규제를 풀기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3200억원(추정 사업비)을 들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이 해양레포츠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부산이 도시 풍격, 시민 삶의 질, 관광자원의 성격 등에서 환골탈태의 변화를 겪으면서 '세계인이 즐기 찾는 해양레포츠 허브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기자(hoyn@kbs.com) / hlyu@net1



북항재개발 국제여객터미널에 신재생에너지 도입 부지조성, 건축공사 내년부터 본격적 진행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구역의 신축 국제여객터미널에 해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도입되고, 입출국 편의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 서비스 시스템이 갖춰진다. 터미널 부지 조성 및 건축 공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항재개발 구역 내 국제여객터미널(1-2 단계) 건립공사 계획에 대해 국토해양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입찰방법을 심의한 결과, 설계·시공을 한꺼번에 하는 턱키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BPA는 또 국제여객터미널에 바다 온도차 및 조류·파랑 등을 이용한 해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선진 항만의 화두인 '그린 포트' 구축을 위해서다. 특히 24시간 불관체제와 입출국 수속 및 수화물 처리 등 이용객 편의에 필요한 캐로센(수하물을 나르는 회전식 원형 컨베이어), 열감지 카메라, X-레이 검색기 등 첨단 설비를 최우선적으로 갖출 방침이다.

이 국제여객터미널은 북항 3~4부두 일대에 들어서는데, 여객청사 건축 부지 확보(일부 매립)와 계류장 보강·보수 등을 위한 하부 토목공사(사업비 530억 원), 상부 건축물(여객터미널·화물처리시설) 건립공사(사업비 2000억 원)가 내년부터 연속적으로 이뤄진다고 BPA는 설명했다.

BPA는 내년 1월 상부 건축물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한 뒤 시

공사 선정, 기본·실시설계(2011년 3월~2012년 1월)를 진행하고 내년 10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목공사는 지난달만 입찰공고가 난 상태로,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이다. 이 공사를 통해 3~4부두 사이에 5만5337㎡ 부지가 조성되고 3부두 및 4부두도 현재 부두 끝단에서 각각 200m, 190m 늘어난다.



이효영 기자
fourbusan@daum.net

부산 남구 용호만 일대가 관광유람선 전진기지로 조성된다. 부산시는 최근 남구 용호동 용호만 일대에 유람선터미널을 건설하고 유람선과 인안크루즈 등을 유지하는 등 관광유람선 전진기지로 조성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용호만을 유람선의 중대형화·고급화를 통한 부산지역 관광유람선의 모항이자 중간기지로 조성하는 한편 유람선터미널 일대를 시민휴식공간과 친수공간으로 가꾼다는 계획이다.

시는 용호만 부두를 관광유람선 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부

두를 정비하고 앞으로 2천급 규모의 관광유람선 3~4척 정도를 다 유지하며 소형 유람선도 기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유람선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부경대에서 실습선 집안시설로 사용 중인 부두 250m 선석에 대해 대체선석을 확보해 전세를 관광유람선 선착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2012년 6월이면 19척의 어업지도선이 감만부두와 5부두에서 대변항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친수하는 감만부두와 5부두를 활용해 부경대 실습선의 대체 집안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시는 또 기능이 께

용호만 부두 관광유람선 전진기지로 조성 유람선 터미널 일대, 시민 휴식공간과 친수 공간으로 활용



용호만 부두에 정박중인 누리마루호

되는 용호부두를 인안크루즈 집안시설로 활용키로 하고 현재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호부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현재 친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m 집안시설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시 정박해 있는 오페라크루즈 유지가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같이 관광유람선 전진기지를 위한 기반시설로 7천 159㎡ 부지에 모두 5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2천 600㎡에 대합실과 매표소, 홍보관 등을 갖춘 유람선터미널을 201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2011년까지 15억 원의 예산을

들어 소형 유람선 등도 기항할 수 있도록 부교와 잔교도 설치키로 했다.

부산시 권정오 관광진흥과장은 "용호만에 임시터미널을 준공해 연안어객터미널을 운행하던 누리마루호가 용호만 부두와 중앙동 연안어객터미널을 4개 항로로 운행한다"며 "대형 관광유람선과 인안크루즈 등이 본격 운행되면 부산 해안 일대가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객원기자

KTX 인근 전통시장에 야시장 쇼핑 셔틀버스 운행키로 자갈치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KTX 인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과 마케팅 활동 지원에 나선다. 수도권 및 경주·울산지역민의 부산활동 비중이 증가, 부산의 유통, 쇼핑, 여행업 같은 서비스업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부산역과 가까운 자갈치시장엔 15억 2천만 원을 들여 유지컬전용극장, 게스트하우스, 문화공연장을 만든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국제시장, 부산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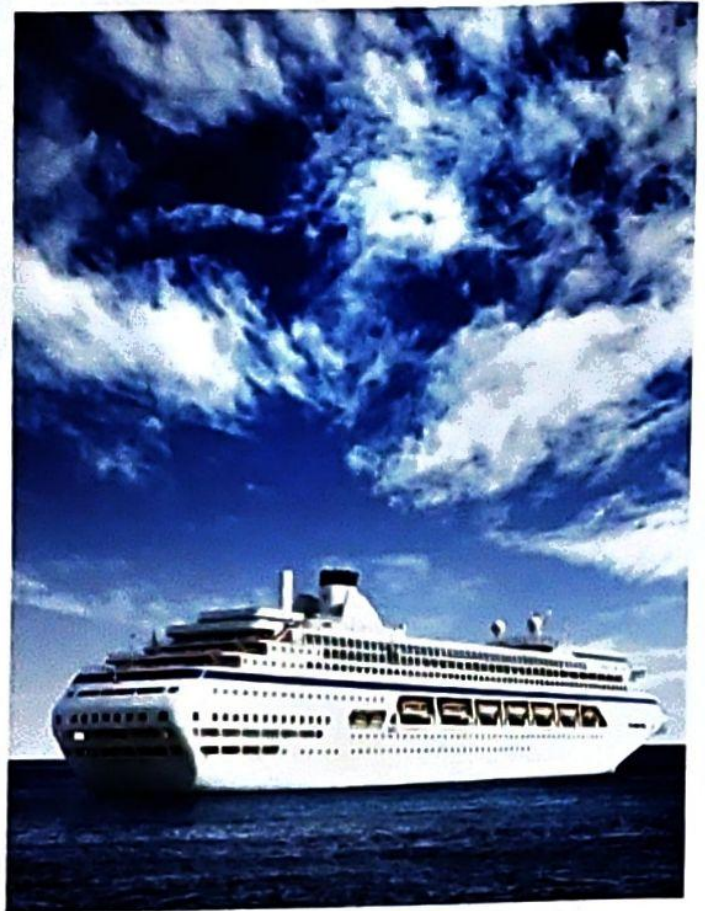
장, 부전시장, 골드테마거리 같은 전통시장들은 경영현대 화사업과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KTX쇼핑객 유치에 나선다. '특별 야시장'을 설치해 울산·경주권 당일 쇼핑객을 유도하고, 부산역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쇼핑 전용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 부산역사 안에는 유통 및 전통시장 홍보관을 운영한다. 주요 백화점과 자갈치시장 등 인근 전통시장 홍보책자와 공동 할인쿠폰을 만들어 비치한다. 쇼핑물품 보관소도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관광택시 도입 시티투어버스 추가 관광코스 다양화·순환크루즈 운항

부산시는 부산역 맞은 편 상해문에서 광장호텔간 안내표지판과 미관을 해치는 각종 시설물을 말끔하게 정비한다. 부산역 관광안내소를 넓히고 첨단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티투어버스는 3대를 더 추가하고, 새로운 문화관광과 시티관광을 접목한 역사·문화 테마형 코스를 개발한다. KTX와 연계한 부산형 관광택시도 도입한다. 야경 관광코스 같은 택시전용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부산역을 출발하는 전일(全日) 관광코스 상품도 만든다. 동·서 부산으로 나뉘 7~8시간을 관광할 수 있는 2개 코스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KTX와 연계한 순환크루즈 운항 지원에도 나선다. 공연, 포럼, 불꽃놀이와 연계한 순환크루즈를 시범운항하고, 레스토랑·컨벤션·유지바를 갖춘 2천 규모의 중대형 관광유람선을 유치할 계획이다.



한국방문의 해 스마트한 글로벌 인재, 글로벌 에티켓 교육으로 키운다



G20 SEOUL SUMMIT
글로벌 에티켓 캠페인
with Global Etiquette Campaign

Let's do it together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계 연립 시민으로
기뻐나기 위한 글로벌 에티켓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p>뒷사람을 위해 문 잡아주기 Hold the door for the person coming behind you.</p>	 <p>전차나 지하철에서 오두 내린 후 타기 Stand until everyone gets off the subway or commuter train before entering.</p>
 <p>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통화하지 않기 Don't speak too loud tones on the ground in public.</p>	 <p>혼잡한 곳에서 부딪치지 않기 Try not to bump into people in a crowded area.</p>
 <p>남편이나 여친을 도와 사과 먼저 하기 Say "excuse me," or "I'm sorry" first.</p>	 <p>공공장소에서 짖이지 않기 Do not spit in public.</p>
 <p>도에서 응급차량 양보하기 Drivers must yield to ambulances, fire trucks, or police cars.</p>	 <p>공공장소에서 공전하기 Do not smoke in public.</p>
 <p>운전자기 보행자에게 양보하기 Drivers must yield to pedestrians.</p>	 <p>행운의 칭찬과 격려하기 (선물하기) Encourage with complimentary instead of negative comments, praise & gifts.</p>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에티켓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에티켓'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교사용)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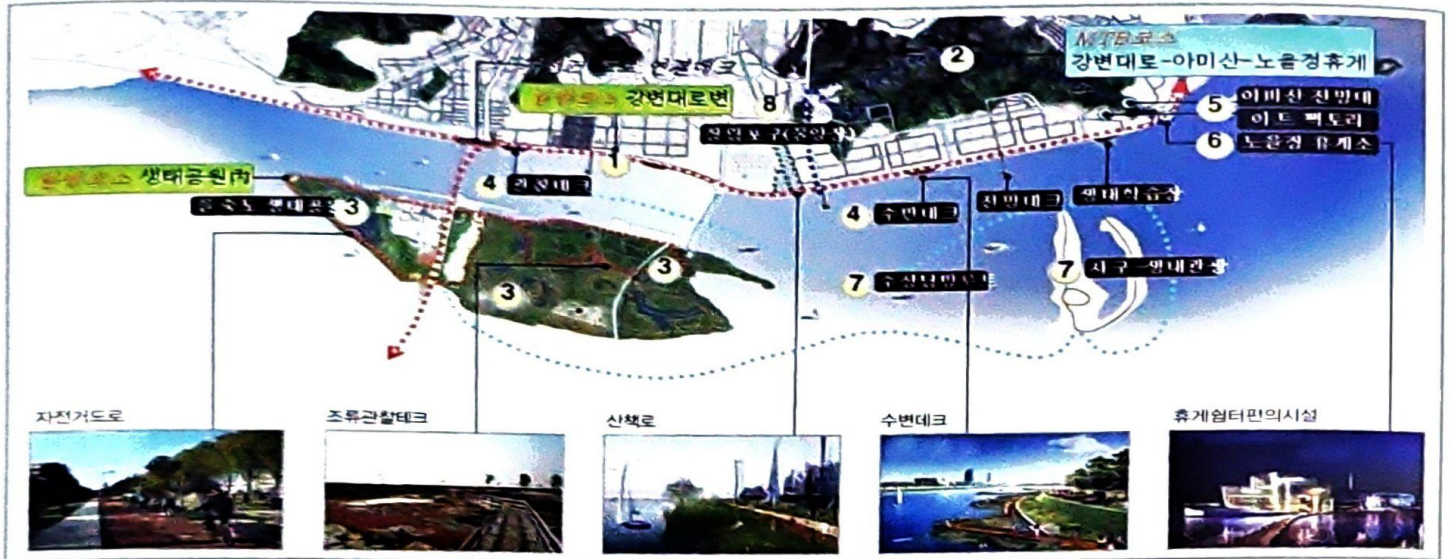
'글로벌 에티켓'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는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선포와 「서울 G20 정상회의(10.11.11-12)」개최를 계기로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으로 교원, 강사, 교수, 진직 외교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필 및 검토위원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초·중·고교용 글로벌 에티켓 교과서 보완지도자료는 '세계 속의 한국인, 한국 속의 세계인' 등 18개의 주제로, 중·고등학교용은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세계인의 첫걸음' 등 15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 지역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글로벌 에티켓과 다문화 사회 및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배려, 한국 전통 예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에티켓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학교에서는 사회, 도덕, 영어 교과 등 각 교과 주제별 학습 활동과 창의적 체험 활동에 따라 본 자료를 재구성하여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국가 간에 통용되는 기본적인 예절을 익힘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의 상숙된 문화적 소양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EBS 등과의 협조를 통해 동 보완지도자료 내용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창조도시 사하, 해양관광도시로 을숙도~다대포~두송반도 관광코스 연결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지난 7월 1일 '풍요롭고 살기좋은 창조도시 사하'라는 구정 목표를 내걸고 취임해 해양관광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 행복도시, 녹색주거도시 등 5대 도시를 제시했다.

해양관광도시의 핵심은 다대포의 해안을 살리는 작업이다. 을숙도~다대포~두송반도로 이어지는 해변을 해양생태 관광단지 개발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마린스포츠, 친수공간, 컨벤션시설, 극장 등을 갖춘 해양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주요 지정사업으로는 을숙도 생태체험 청소년수련원건립, 강변대로 확장 및 낙조휴게공간 조성, 다대포 연안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포구 복원을 통한 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을숙도 생태체험 청소년수련원 건립

을숙도 상단부에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체류하면서 생태체험, 수련활동, 철새관찰 등 다목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생활관,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생태체험수련 활동장 등이 주요시설로 갖춰진다.

강변대로 확장·낙조 휴게공간 조성

신평동 66호 광장~다대동 (주)대아신제로 이어지는 3800m 구간을 폭 25m에서 31m로 확장해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교통체증 해소, 도시철도 다대 구간 공사 우회도로로 활용, 낙동강 하구 칠새도레지 연계 관광자원화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다대포 연안정비사업 원활한 추진

다대포해수욕장에 올 여름 피서객 324만 5000명이 몰리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방사림 조성, 물운대 낙조전망대가 기여했는데 이들사업은 다대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진입광장, 다목적광장, 숲길, 방사림, 생태담방로, 해수천 등이 2014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이다.

포구 복원 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변대로를 따라 하단포구, 장림포구, 흥티포구등이 흩어져 있는데 이를 복원해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고기·조개잡이, 신상낚시, 어선승선, 그물체험과 같은 포구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민지 객원기자

다대포 낙조 분수 LED로 새 단장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가 올 겨울에는 따뜻한 LED 조명 옷으로 갈아입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사하구에 따르면 내년 2월 20일까지 두 달 동안 낙조 분수 일대를 트리조명으로 장식하고 LED 조명 터널을 설치하는 등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빛으로 운영 하고 있다. 시비 3천만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겨울철 가동이 중단되는 바닥음악분수를 대신할 각종 즐길거리를 만들어 4계절 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첫 시도이다. 이를 위해 구청 측은 낙조 분수 주변 100여m 가로수에 각양각색의 LED 조명과 장식용구를 설치하고, 분수대 앞 인도에는 60m 길이의 LED 조명 터널을 조성했다

또 분수대 광장 한 가운데에 2m50cm 높이의 대형 호랑이·토끼 모형 전통등을 설치해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관람객들에게 포

토존으로 제공한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사하구는 낙조 분수의 겨울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모두 30건의 의견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얼음조각 경진대회 개최, 무지개색 바람개비 설치, 족욕탕 설치, 스케이트장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특히 저소득 가정과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결혼식을 열거나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만들자는 이색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사하구는 이들 아이디어 중 실현가능한 것부터 내년 운영에 반영해 4계절 관광지로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책방골목문화관 탄생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헌책방골목인 부산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에 문화관이 개관됐다. 보수동 책방골목에 이곳의 역사와 미래 희망을 담은 문화공간인 책방골목문화관이 최근 완공됐다. 지상 8층으로 지어진 책방골목문화회관은 1층 안내실, 2~3층 책 박물관, 4층 다목적홀, 5층 사무실, 6~7층 북카페, 8층 옥상정원으로 꾸며졌다. 책 박물관은 보수동 책방골목의 유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책방골목 역사를 담은 사진과 1950~70년대 유행했던 책, 당시 인쇄방법을 볼 수 있는 인쇄시설, 희귀도서, 책·결상 등이 전시된다.

그동안 책방골목에는 50여개의 서점들이 밀집해 있었으나 문화향유시설과 편의시설이 전무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아쉬움이 컸다. 구청 담당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보수동 헌책방 골목의 역사성을 알릴 공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역민의 관심이 모여 문화관을 설립하게 되었다”며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은 문화향기 가득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문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안리 해변, 문화 여가 친수공간으로 변신

육상에서 40m 떨어진 바다 위 260m² 규모로 해상야외공연장 설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가 문화와 여가가 넘쳐나는 친수 공간으로 바뀐다.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의 동서 양쪽 연안 구간을 시민이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꾸미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비 4억 원을 확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 74억 원을 확보해 연내 착공, 내년 상반기 중 완공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1.4km에 이르는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 양쪽 끝으로 민락동 야외무대~부산횃집 235m구간과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앞 220m구간이다.

민락동 야외무대~부산횃집 구간은 범선 형태의 전망공간과 조형분수 광장 수목과 벤치 등의 휴식 공간이 들어선다. 삼익

비치아파트 방면에는 물길을 이용한 공간과 함께 산책로가 만들어진다. 양 구간 모두 매립 당시에 둑 형태로 일괄적으로 정비된 이후 시민이 바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계단형의 스탠드를 설치해 바닷물에 발을 담글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수영구는 올 여름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민락동 수변공원 앞바다에서 광안대교의 야경을 감상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해상야외공연장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해상야외공연장은 육상에서 40m가량 떨어진 바다 위에 260m² 규모로 설치된다. 이와 함께 수영구는 수영교~민락매립지 수변공원 끝단에 이르는 수영강변 1250m 구간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으로 꾸미는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청소년 문화요람’ 용두산 소극장 탄생

부산지역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1호 ‘나다문화사업단’ (이하 나다)이 소극장을 열었다. 원도심의 문화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 아래 수개월에 걸쳐 공을 들여 만든 소극장이어서 더욱 의미깊다.

나다는 지난달 29일 부산 중구 광복동 용두산공원 입구에서 ‘용두산 소극장’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은 3시간여 동안 지신밟기와 판소리, 벨리댄스, 종이비행기에 소망적기 등 각종 공연으로 구성돼 있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개관을 기념해 내년 1월 2일까지 영상물 등을 첨가하는 등 새롭게 재해석한 연극 ‘빨간 피터’ 공연도 선보인다.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중간 지점에 터를 잡은 용두산 소극장은 98개 객석에 260여㎡(약 80평) 규모이다. 나다는 지난달 20일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으면서 부산지역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유일한 사회적 기업이 됐다.

이민지 객원기자



빨간피터

공공 여가·문화시설 ‘가족할인제’ 부산, 가족 함께 이용 10~20% 혜택

부산시는 가족이 함께 공연·수영장·청소년수련관 등 부산지역 공공 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가족할인요금제’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민간업체가 가족이 함께 이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는 있으나, 자치단체가 이를 도입한 것은 부산시가 전국 처음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은 19곳. 요금 할인 폭은 10~20%이다. 부산시는 먼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금곡 청소년수련관, 함지굴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수련시설 6곳에 대해 규정요금의 20%를 할인할 수 있도록 ‘부산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시티투어버스와 태종대공원 다누비열차·유람선, 부산문화회관의 시립예술단 공연 등도 가족 단위 이용객에게

입장·이용료 10~20%를 할인해 준다.

사직수영장, 강서수영장, 북구빙상문화센터, 금정체육공원 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부산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 6곳에 대해선 가족할인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12월 부산시의회에 상정했다. 할인을 받기 위해 별도의 가족관계 확인서를 소지할 필요는 없다. 부산시는 앞서 이용요금이 낮은 부산박물관·시립미술관 등 5곳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완전 무료화했다.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 박원영 가족복지담당사무관은 “가족할인요금제 도입으로 가정의 경제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줘 가족이 함께 여가문화를 즐기는 가족친화도시가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 문화시설에서도 가족할인요금제를 적극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객원기자

열 신선(神仙)이 살았던 신비의 땅 부산

지금도 부산이 항구 문화관광도시이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역사 기록에 따르면 부산은 열 신선(神仙)이 살았던 무척 경치가 뛰어난 신비의 땅이었다고 한다.

첫째가 해운대의 고운 최치원 선생이다. 고운 선생은 가야산에서 신선이 되었고(가야산은 합천 가야산이 아니고 부산의 가야산이라는 주장도 있다) 둘째 고려시대 배산의 선인 김겸효로서 속세를 떠나 배산의 신선이 되었고, 세 번째가 금정산의 소하(蘇蝦)선인으로 사슴을 타고 나타났고, 네 번째가 금구(金龜)선인으로 금거북을 타고 나타났다고 한다.

다섯 번째가 중국 진나라 서복(徐福)으로 진시황의 명을 받아 동

남동해를 건너고 불로초를 찾아 부산 남구의 강선대를 기치 일본으로 갔고, 여섯 번째가 남구 용당포의 선인 가나진(伽那真)으로 대마도에 건너가 왜인의 조상이 되었고, 일곱 번째가 가야 삼시(三池)선인으로 강서구 침집산에서 가야 2대 기동왕의 빛이 되었다 한다.

이덟 번째가 금정산 최고봉 고당봉의 고당(姑堂)할미로 부산의 수호할미신이 되었고, 아홉 번째가 상산의 이신 고신옥(高仙玉)으로 장산 천강실화에 나타나고, 열 번째가 동해 용왕신으로 바다마다 사천 풍어가 있게 했으며 부산의 강과 온천의 수원(水源)을 끊지 않게 했다고 한다. 부산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부산 10신이다.

금정산 · 황령산 · 봉래산 · 장산

예부터 부산은 사산(四山) 신앙이 있었다고 한다.

하늘에서 금빛 풀고기가 오색 구름을 타고 내려와 놀았다는 금정산은 그 최고봉이 할미 고풀(姑婁)자 고당봉으로 신모를 모신 사당이 아득한 옛날부터 정상에 있었다. 금정산은 어머니의 모태같은 대모산(大母山)이다.

두 번째 황령산은 거칠산이다. 고대국가 거칠산국이 있었듯 거칠 외나라 사람들의 산이 황령산이다. 부산의 지명 동래, 래산, 봉래에는 거칠다는 뜻이 들어 있다. 래(萊)는 명아주래요, 봉(蓬)은 쑥 봉으로 각기 들란의 대표적인 잡초를 가리킨다. 명아주와 쑥이 무성한 거칠의 황령산에서 이어온 그 삶은 바로 옛 부산사람들의 예토(御土)에 이어나간 인간의 삶이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언젠가 나타날 미륵 신선을 기다렸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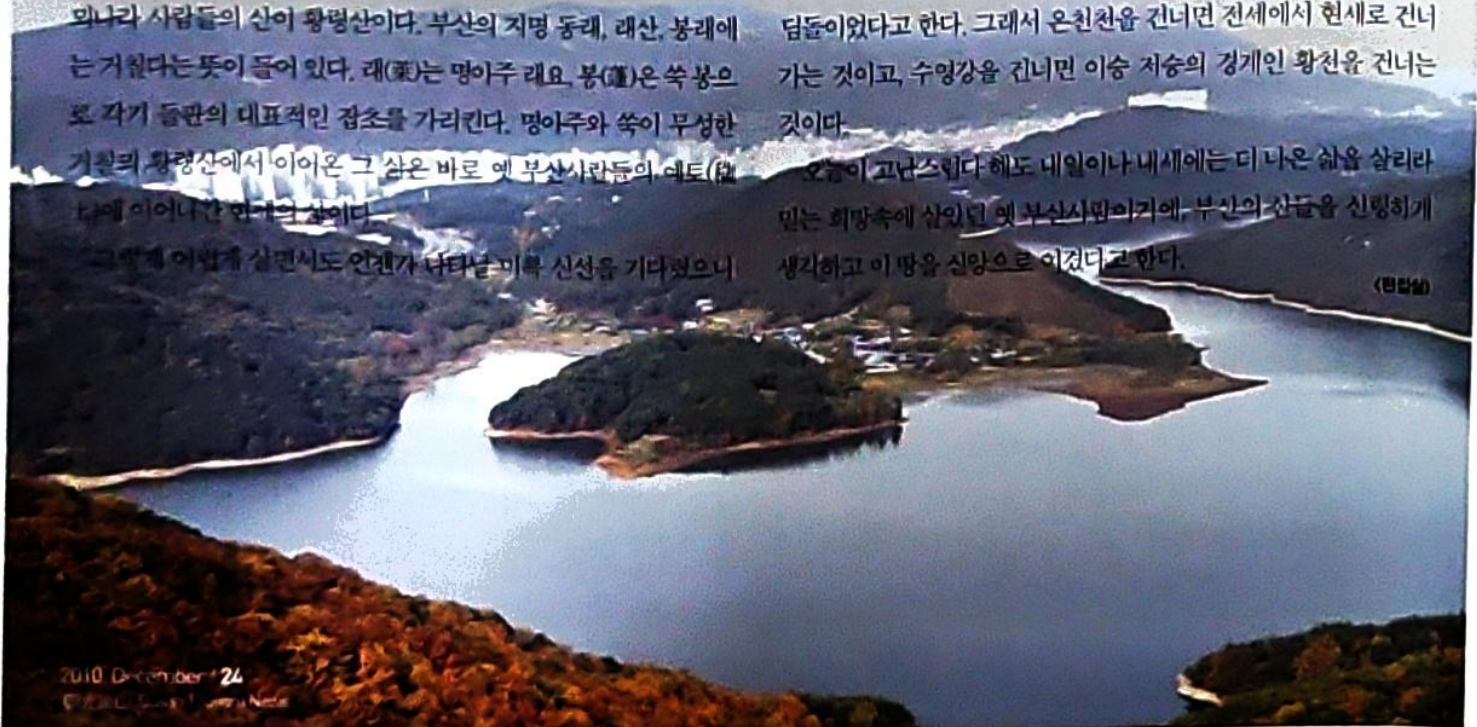
그 기다림의 산은 절영도 봉래산이다.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의 삶을 비티게 해준 산이다.

그러면 내세의 산은 어떤가? 장산이다.

장산의 왼 이름은 상산, 뒷 상(上) 뒤편 산(山)의 상산은 하늘이 가운 하늘뿔, 좌동 폭포사 위 정상쪽에 상산마고당과 천제당이 있다. 상산은 정토(淨土)의 산으로 이승을 떠난 영혼이 하늘에 오르는 디딤돌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온천천을 건너면 진세에서 현세로 건너가는 것이고, 수영강을 건너면 이승 저승의 경계인 황천을 건너는 것이다.

오늘이 고난스럽다 해도 내일이나 내세에는 더 나은 삶을 살리라 믿는 희망속에 살았던 옛 부산사람이기에, 부산의 산들을 신령하게 생각하고 이 땅을 신앙으로 이겼다고 한다.

(한갑설)



H · O · T · E · L · A · Q · U · A

www.aquapalace.co.kr

낭만이 깃든 초록빛 내음 가득한 그곳에
「호텔아쿠아펠리스」가 있습니다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체육실

골프연습장

온디올리아테룸

수영장

21F	전망라운지
19~20F	스카이라운지
10~18F	객실
4~9F	워터파크
3F	중연회장
2F	대연회장, 소연회장, 일식당
1F	로비라운지, 랑데스아태리정통레스토랑

국내최조 사계절 비치워터파크 호텔 「호텔아쿠아펠리스」

「호텔아쿠아펠리스」는 국내최조 사계절 비치워터파크 호텔로 38℃ 천연 암반
심해온천수가 사용된 워터 테마파크입니다



HOTEL AQUA PALACE
호텔아쿠아펠리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안2동 192-5
Tel. 051-756-0202 Fax. 051-790-2366

부산, 부전역 복합환승센터사업,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

동남권 교통·경제·관광·비즈니스 중추 기능 담당할 것

부전역과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돼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부전역과 동래역 복합환승센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규정된 용어로, 열차와 항공기, 선박, 지하철, 버스, 택시, 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 및 환승, 상업, 업무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승 시설 및 환승 지원 시설을 한 장소에 모아놓은 곳을 말한다.)사업이 지난 10월 국토해양부가 전국 지자체와 공기업에 대상으로 실시한 '복합환승센터 정부시범사업 공모'에서 2011년 추진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계획은 지하 3층, 지상 5~23층 등 2개동에 전체면적 30만7천440㎡ 규모의 역무시설, 부대시설, 지하상가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전역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면 전국을 연결하는 동남권

교통의 허브로 동남권 상권 중심과 교통, 경제, 관광, 비즈니스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 복합환승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전역은 도심교통 접근성과 공간 활용성이 좋고, 경부선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부전~마산 복선전철, 경전선 기종점으로서의 다양한 철도 이용, 지하철 1, 2호선 등 대중교통과의 환승이 편리해 복합환승센터로서의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예술의전당 부산분관과 시민공원, 부전역세권, 복합환승센터가 어우러진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은 현재 동래역사 자리에 지상 11~14층 규모의 건물 2개동과 주차건물 등 총 면적 1만7천521㎡(환승센터 8천761㎡, 주차장 8천760㎡)의 시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부산 동해남부 폐선철도 관광시설로 동부산관광단지 연계... 레일바이크 도입 등 검토

오는 2014년 폐선 예정인 동해남부선 철도 우동~송정역 구간 노선에 대한 관광자원화가 추진된다.

부산시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014년 폐선 예정인 해운대구 내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에 관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으로 폐선이 예정된 구간은 해운대구 올림픽고차로 부근 우동역~ 동부산관광단지 입구 송정역에 이르는 구간으로 길이 11.3km, 면적 44만 650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의 철도부지 및 철도시설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이 부지의 선로를 활용해 관광열차나 레일바이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구간은 해안가 절벽을 따라 운행하는 뛰어난 경관 특성을 갖추고 있어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관광열차가 운행되면 인근 동부산관광단지 등과 연계한 관광수요 활성화는 물론 해운대 일대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4월쯤 마무리한 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2014년부터 개발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관광안내전화 1330 '티티콜센터'로 명명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안내전화 콜센터의 이름을 '1330 티티콜센터'로 정했다고 밝혔다.

24시간 연중휴무 4개국어로 운영하는 관광안내전화인 1330(휴대전화는 02-1330)의 새로운 이름은 영어로 숫자 '1330'을 부르는 명칭인 'Thirteen Thirty'를 비롯해 'Travel Telephone', 'Tour Technology' 등 다양한 뜻

을 담았다. 관광공사 측은 올해 10월 말 기준 콜센터 이용 건수가 14만500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38%가량 늘었다며, 앞으로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대현 객원기자

부산항 통해 입국한 크루즈승객 증가



올해 크루즈 선박을 이용한 여행객이 지난해에 비해 3.3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경남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부산항에는 크루즈 선박이 79차례(단순 기항 47차례+모항 운항 32회) 입출항했다. 올해 부산항을 오간 관광객만 17만9천150명이었다. 지난해 부산항 전체 크루즈 여행객(4만1천544명)에 비해 4.3배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내국인 크루즈 여행객은 2만5천31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3배 늘었다. 외국인 크루즈 여행객도 지난해에 비해 3배는 15만3천837명을 기록했다. 크루즈 여행객들은 씬스름이도 컸다. 크루즈 여행객들의 국내 면세점 구매액은 지난해 50만5천달러에서 13.5배는 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면세점 매출액에서 크루즈 여행객의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1.21%에서 올해 23.9%로 크게 늘었다.

세관은 외국인 크루즈 여행객들이 시내관광을 하면서 쓴 돈을 합하면 크루즈 승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세관은 "올해부터 부산항을 모항으로 한 크루즈선박 신규 취항에 맞춰 '크루즈 통관 전담팀'을 운영하고 수화물 전용 X-레이 검색센터 운영, 통역 서비스 제공 같은 서비스를 해왔다."라며 "부산항을 모항으로 한 한~중~일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발맞춰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대현 객원기자

도자기 체험관광

도자기란

무기물질을 주 원료로한 점토르써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 구어낸 소결체로 정의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흙(점토)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고 말린 다음 그 위에 유약을 입혀 높은 온도에서 구운 것을 말한다. 유약이란 것은 성분이 주로 광물질, 즉 돌 가루로서 만들어진 형태 위에 입혀 고온에서 구워 녹여서 새로운 광물질로 만든 것이다. 넓은 뜻의 도자기는 도기, 자기, 석기, 토기를 총칭하는 말이다.

도자기체험교실

도자기의 체험교실은 다음의 일곱단계를 거치는 공방과정을 뜻하기도 한다.

수비 흙을 곱게 분쇄하여 물에다 풀고 불순물 제거를 위해 흙물을 채에 거른 후 가라앉은 앙금을 채취하여 그늘에서 건조시킨다.

토련 건조된 흙에 적당한 물을 첨가하여 발과 손 또는 떡매를 이용하여 잘 반죽하면 흙이 부드럽게 되고 공기가 제거된다.

성형 도자기의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물레성형과 주입(注入),압출성형(押出成形)등이 있다.

*굴깍기 : 물레성형의 경우 성형된 기물을 하루정도 건조시킨 후 기물의 하단부를 깎아서 굽(바닥)을 만든다.

조각 청자의 경우는 조각도를 이용하여 기물의 표면에 문양을 조각하여 상감을 처리한다. 분청의 경우 백토분장을 하는 귀얄법이나 백토분 위에 조각을 하는 박지기법 등이 있다.

초벌구이 초벌구이는 약 850-900 ° C에서 소성한다.

*백자의 경우는 초벌구이 후에 화필로 그림(코발트안료, 철화, 진사 등)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유 초벌구이 된 기물에 유약을 입히며 시유방법으로는 담금법, 분사법, 도포법 등이 있다.

재벌구이 유약을 입힌 기물을 1200-1300 ° C에서 소성한다.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1-2 Tel. 051)727-0161

[개관시간]
10:30~16:00

[소요시간]
1일 1회 약 1시간, 매주 월요일 휴관 90명 수용



기장도예관

문화와 자원이 숨쉬는 고장 기장에서 도예에 담긴 아름답고 유용한 문화를 체험한다. 기장에는 옛 가마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옛부터 도자기를 구워왔다는 흔적이다. 지역 원로 등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도자기 장인들이 기장지역을 대거 거쳐간 때문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이 영향인지 기장에는 지금도 도요지가 많다. 흙 또한 분청사기에 적합한 질 좋은 것으로 한 몫한다. 임랑해수욕장 끝자락에 해변과 잘 어울리는 3층 건물인 기장 도예관이 있다. 옛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며 남녀노소 누구나 손 쉽게 즐

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장도예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도예관 1층은 일반인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고 교육받을 수 있는 도자기 체험장, 도자기를 비롯한 각종 도예품을 만들기에 사용할 흙과 가스가마, 토련기, 물레 등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다. 2층은 도자기 전시공간, 3층은 예지원이었다.

흙을 만나고 싶을 때, 흙과 덩굴고 싶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싶을 때 기장도예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손해식 편집위원



[기장군 도자기 현장 체험답사 & 개인지도, 지역번호 (051)]

- 현해도요 : 기장읍 교리(현해 김해웅) 721-7507
- 일 광 요 : 기장읍 만화리(김수정) 011-9365-2651
- 신라민요 : 기장읍 서부리(황산 이수백) 721-2891
- 토와도자 : 기장읍 시랑리(설한우) 017-542-5223
- 고온도예 : 기장읍 시랑리(이복식) 722-7978
- 서랑도예 : 기장읍 연화리(서정욱) 722-8870
- 소 림 요 : 기장읍 죽성리(소름 송중환) 722-0018
- 여 천 요 : 기장읍 청강리(여천 손재석) 010-3044-3505
- 해 오 요 : 장안읍 기룡리(김세현) 011-6789-8500
- 삼 락 제 : 장안읍 기룡리(윤기철) 727-6694
- 오여도예 : 장안읍 오리(다음 조영숙) 011-9755-3931
- 도예공방 : 장안읍 오리(토화수 최익성) 727-7329
- 목림도예 : 장안읍 오리(하영주) 010-4548-2435
- 하랑도예 : 장안읍 오리(하랑 한연호) 011-9870-3931
- 장 안 요 : 장안읍 장안리(신경준) 727-8216
- 좌 방 요 : 장안읍 좌천리(오부석) 727-4686
- 토 부 요 : 일광면 문중리(토부 서타정) 727-4130
- 백 화 요 : 일광면 삼성리(백천 앙웅모) 722-4898
- 상 주 요 : 일광면 원리(도봉 김윤태) 727-3187
- 지산도예 : 일광면 원리(이현오) 017-596-0021
- 탄저도예 : 철마면 송정리(탄제 김명수) 508-4092



꿈의 바닷길 거가대로 개통

남해안의 동맥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꿈의 바닷길 거가대교가 열렸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가대교(8.2km)를 포함한 총 연장 33.9km의 거가대교가 지난 13일 드디어 개통됐다. 거가대교는 부산 강서구 녹산동~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간 33.92km를 말한다. 부산과 경남 쪽 접속도로 25.72km 구간을 제외하면 진해만 바다를 가로지르는 8.2km의 부산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거제시 장목면 유희리 간 거가대교가 핵심구간이며, 거가대교 건설에 각종 첨단 공법이 동원됐다. 거가대교는 가덕해저터널(3.7km), 2개의 다이아몬드 형 사장교(3.5km), 육상터널(1.0km)로 이뤄졌다. 먼저 가덕해저터널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낸 쾌거로 일컬어질 만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세계 최장인 길이 180m짜리 침매함체는 세계최초로 이루어진 공법이다. 20개를 이어 만들었는데 1개 함체의 길이가 180m, 높이 9.97m, 폭 26.5m에 달한다. 함체 1개에 들어간 철근과 콘크리트를 30평형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환산

하면 철근은 905채, 콘크리트는 460채를 지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한다. 세계 어느 건설사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최대 수심 48m에 건설되는 등 5가지 세계기록과 3가지 국제특허 출원 기록을 남겼다. 2개의 사장교도 국내에서는 처음 다이아몬드 형을 선보였다. 현장에서 시공하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케이슨을 제작해 바다 위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도 처음 선보였다.

1995년 당시 재정경제원이 부산·경남 광역권의 생산성 극대화 및 남해고속도로의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거가대교 건설 사업을 민자 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했고, 이후 9년에 걸친 타당성 검토 등의 준비 절차를 2004년 12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착공 당시 8개월 지연 착공되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고, 설계상 준공일인 2010년 12월9일 준공과 함께 12월13일 6년간의 대역사 끝에 개통식을 가졌다.

거가대로 33.92km 구간 중 부산시와 경남도가 맡은 접속도로

17.52km를 제외한 해저터널과 사장교 등 8.2km의 거가대교 구간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다. 거가대교에만 2조2천315억원이 투입됐고, 이중 민간이 1조5천255억원을 부담했고, 7천90억원은 정부와 경남·부산시가 재정 지원했다. 총 사업비중 이업보상에만 무려 950억원이 들어갔다. 건설에 들어간 사업비는 유료화로 전환되는 내년 1월1일부터 2050년 12월31일까지 40년간 민간투자회사가 통행료를 받아 회수한다.

통행료는 민간투자사인 거가대로조합과 부산시, 경남도는 일단 소형(승용차) 기준 1만원으로 잠정 합의 했다.

거가대로는 아름다운 남해의 풍경과 이우러지는 다이아몬드형 사장교(4.5km)뿐만 아니라 국내 첫 침매터널(3.7km), 접속교 등 첨단 공법이 동원됐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접속도로와 사장교 침매터널 등 도로 전체 구간을 '거가대로', 사장교는 '거가대교', 침매터널은 '가덕해저터널'로 각각 부르기로 확정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수도권 거주자 90% 이상 “거가대교로 부산·경남 관광하겠다”

수도권 거주자의 90% 이상이 경남 거제시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를 이용해 부산·경남을 관광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최근 수도권(150명)과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350명) 시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수도권 거주자의 92.7%가 거가대교를 이용해 부산·경남을 관광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거가대교를 이용한 관광코스 고려사항으로 수도권 거주자의 39.3%가 편리한 이동 동선을 꼽았으며, 합리적 여행비용(22.7%), 차별화된 관광상품(20.0%), 정확한 관광정보(16.7%) 등의 순이었다. 거가대교를 연계한 관광상품 구매 의향을 묻는 질문에 수도권 거주자 68%가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관광상품 구매 의향에 대해 부산은 85%, 울산 64.3%, 경남은 62.8%로 나타났다.

경남발전연구원 김태영 책임연구원은 지난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TX·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동남권 광역 관광협력 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동남권 관광상품 개발 방안으로 동남권 통합 관광교통 및 연계 관광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

원 전효재 책임연구원은 “거가대교 개통을 계기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발전연구원 최도석 선임연구위원은 동남권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남권 공동축제와 공동 철도관광상품 개발, 공동 연안크루즈 터미널 조성, 거점별 항공레저터미널 조성 등을 제시했다.

공동축제로 부산포 해전 등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토대로 한 거북선 축제 개최를 추진과제로 제안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에어부산, 후쿠오카·오사카 이어 내년 타이페이 취항

에어부산(대표 김수천)이 내년 1월 27일 부산~타이베이 노선에 취항한다. 에어부산은 부산~타이페이 노선 취항일을 내년 1월 27일로 확정하고 이를 위해 내년 초 A321-200 항공기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321 기종을 도입하는 것은 국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서는 처음이다. 에어부산은 최대 220석까지 운영할 수 있는 A321기종을 쾌적한 여행을 위해 좌석 간 거리를 여유있게 조정해 195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에어부산은 또 부산~타이페이 노선에 기내식을 제공하고 실시간 비행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디오와 LCD 모니터 등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과 타이베이를 오가는 항공사는 외국항공사 한 곳 뿐이며 국적항공사로서는 에어부산이 처음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타이베이는 여행객뿐 아니라 화교 및 각종 단체들의 교류와 방문이 잦은 곳"이라며 "특히 한류 열풍으

로 한국을 찾는 대만 관광객을 유치해 부산은 물론 한국 관광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초 부산~후쿠오카와 부산~오사카 노선으로 첫 국제선에 취항한데 이어 이번 부산~타이페이 노선 취항으로 국제선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고품격 선상파티 크루즈 Tiffany21’ 연말모임, 특별한 장소를 찾고계세요?

매년 똑같은 연말모임과 송년회 행사에 식상한 분들께 고품격 선상파티크루즈 티파니21의 다양한 연말 이벤트와 함께하는 선상투어를 추천한다.

티파니21 디너투어에는 연말까지 기존의 선상 뷔페메뉴 이외에 석화, 과메기, 오징어순대 등 겨울 제철음식이 추가로 제공된다. 티파니21 조리팀이 직접 선보이는 뷔페메뉴는 선상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혜택으로 아름다운 부산바다의 야경과 함께 오감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광안대교 바로 아래에서 즐기는 바비큐도 연말 선상파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티파니21만의 서비스이다. 12월 31일 선상 해넘이도 놓칠 수 없는 행사로 2010년을 보내며 선상에서 쏘아올리는 불꽃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2011년 1월 1일은 선상에서 해돋이를 보면서 힘찬 한해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연말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가 있는 티파니21에서 한해의 마무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12월 한달 간 모든 디너투어 승선고객대상 응모권 추첨을 통하여 티파니21에서 마련한 연말선물을 드리는 행사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oveacruise.com)를 참고하세요.



[운항코스]

주간 : 동백섬→해운대→오륙도→이기대→광안대교
야간 : 동백섬→누리마루→해운대→광안대교

[운항시간]

| 런치투어 12:00~14:00 | | 쿠키투어 15:30~17:00 |
| 디너투어 19:00~21:00 | | 나이트투어 22:00~24:0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9 마린시티 168
Tel. 1577-7721 / 051)743-2500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1월 1일 비 오면 50% 할인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은 신년 일출과 관련한 이색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른바 해돋이 날씨 보험. 새해 일출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가 큰 만큼 만일 2011년 1월1일 당일 비가 내려 그 광경을 볼 수 없다면 패키지 요금의 50% 금액을 환불해 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해당되는 패키지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의 해돋이 패키지와 해님이 불꽃 스위트 패키지로 2010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에 투숙해 다음 날인 1월1일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1박2일 상품이다.

해돋이 패키지는 해운대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발코니가 있는 디럭스룸에서 하루를 묵을 수 있다. 2인 조식이 포함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노천온천과 아름다운 바다의 야경이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옥외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행운의 쿠키도 제공된다. 패키지 가격은 40만원이다. 해님이 불꽃 스위트 패키지는 침실 이외 거실이 함께 갖추어져 있는 사이즈가 넉넉한 스위트룸에서 숙박하는 상품. 신관 최상층에 위치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2인 조식과 커피와 차, 케이크, 칵테일 서비스, 노천온천과 옥외수영장,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 12월31일 부산의 상징인 광안대교 인근을 돌아오는 티파니21 크루즈 승선권 2장이 주어지는데 선상에서 해님이 카운트 다운 불꽃쇼와 맥주 파티가 포함되어 있다. 패키지 가격은 63만~78만원.

두 패키지 모두 1월1일 일출 시간대에 바다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연회장에서 편안하게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해돋이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당일 비가 와서 환불혜택이 적용될 경우 해돋이 패키지 이용 고객은 20만원, 해님이 불꽃 스위트 패키지 이용 고객은 31만5천원 또는 39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팬스타 크루즈 타고 선상에서 새해 축복을...

팬스타 크루즈 출발점인 부산은 해운대, 광안리해수욕장, 태종대,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 등 다양한 관광 명소가 있어 여행지로 사랑받는 도시다.

크루즈는 12월 31일 오후 5시 20분쯤 2010년 마지막 일몰을 감상하기 위해 물운대 앞바다로 움직인다. 부산 남서쪽 대대곶 동편에 위치한 물운대는 태종대, 해운대와 함께 부산 3대(臺)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울창한 수림과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아름다운 일몰로 유명하다. 원래 이곳은 물운대라 불리는 섬이었으나 낙동강에서 내려온 토사가 쌓이며 대대곶과 연결된 육계도가 됐다.

태종대는 부산에서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부산을 찾는 여행객이라면 한 번쯤 둘러보는 곳이다. 200여 종에 달하는 울창한 수목과 기암괴석, 탁 트인 전망이 어우러져 오래전부터 부산 연인들에게 최고 데이트 코스로 사랑받아 왔다.

부산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자갈치시장. 비릿한 바

다 내음과 싱싱한 생선들 움직임, 정겨운 시투리로 손님을 잡아끄는 자갈치 아지매들은 활기 넘치는 부산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달해준다. 또한회는 물론 장어구이, 곰장어구이, 조개구이 등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어 입까지 즐거워진다.



부산 아쿠아리움 1천만 방문객 돌파, 할인 이벤트





블루러브 부산아쿠아리움

전시 생물 수 400여 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 해수어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3D 라이더



수중 미술쇼



사크다이브



상어 먹이주기쇼



종관 먹이주기쇼



터치풀 체험



상어수조관람선



수달 먹이주기쇼

www.busanaquarium.com 문의전화 051-740-1700

1월 한달 간 '부산 남구민' 은 부산아쿠아리움이 반값!

부산아쿠아리움은 2011년 1월을 "부산시 남구민 감사의 달"로 지정, 입장료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남구민을 위한 50%할인 행사는 부산아쿠아리움 최초로 진행되는 것으로 1월 한달 간 진행되며 부산시 남구민 이라면 누구나 50%할인된 가격에 부산아쿠아리움 관람이 가능하다. (거주확인용 신분증 제시) 또한 지하 3층에 설치된 '장학금 모금함'을 통

해 1월 한달 간 장학금 모금도 진행된다. 모아진 장학금은 남구민 입장료 수익의 10%를 더해 내달 남구 내 장학생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지난 9월 '해운대구'를 선두로 부산시의 하나의 구/군을 선정, 입장료 50% 혜택을 주는 "부산시민 감사캠페인"은 네 달째 진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환원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문의] 051-740-1700 / www.busanaquarium.com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공제영업보증금 증액에 따른 기준 알림(긴급알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1. 1. 1부터 전년도 총매출액에 따른 영업보증금액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필히 참조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업무 지침

가. 2011. 1. 1부터 시행되면 직전 사업년도인 2010년의 총매출액 확인이 불가하므로 그 전년도인 "2009년도 총매출액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산정(단, 신규 업체는 기준과 동일)

※ 영업보증금 가입금액 기준(www.bta.or.kr→공지사항(번호301번 참조))

나. 2011. 1. 1부터 시행되는 보증보험금 증액에 따라 업체별로 총매출 기준에 상이하므로 증액이 불가피한 회원사(여행사)는 우선, 2009년도 총매출액을 토대로 2011. 3월~4월 까지 증액된 보증보험 가입한 후 2011. 4월 이후 2010년도 총매출액을 다시 확인 후 증액 여부 결정(회사별로 결산일에 따라 결산시기가 각기 다르므로 기준일은 최근 결산서를 기준으로 진행), 기존 2010년도에 발급된 업체는 2009년도 총매출액을 토대로 증액여부가 결정되며 증액이 불가피한 업체는 2011.1.1부터 증액된 금액만큼 영업보증금 재가입(※ 총매출액 파악 기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사표)와 일반여행업종 인바운드 업체는 부가세 신고서 첨부)

(비 고)

1.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일반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영업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단위: 천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200,000	200,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부산 시티버스 운행코스

해운대 · 태종대 야경코스



광안대교

부산 제일의 랜드마크 광안대교! 바다 위 보석처럼 빛나는 명품 브릿지 광안대교는 국내 최초의 해상 복층 현수교이다. 10만 개에 이르는 형형색색의 LED 조명 불빛이 만들어내는 빛의 파노라마는 1년 365일 날마다 새로운 추억과 낭만을 선사한다.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야영 체험과 도자기 체험,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부산최대의 인공암벽장을 마련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부산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금련산 정상에 위치한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은 야경을 감상하기에도 안성맞춤인 동시에, 부산 유일의 천문대를 통해 밤하늘을 관측할 수도 있어 부산시민의 휴식 장소로 크게 사랑받고 있다.



달맞이길

봄이면 흐드러지게 만개한 핑크빛 벚꽃길이 펼쳐지고, 밤이면 달빛따라 걷는 해안 산책길 문탠로드가 이어지는 달맞이길! 정월 대보름, 이곳에 위치한 해월정에서 사랑을 약속하면 평생 사랑이 이루어 진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부산박물관

멀고 먼 선사시대부터 삼한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부산 지역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부산시립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살아 숨 쉬는 부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만나보자.



UN기념공원

세계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유엔군 장병들! 한국전쟁 UN참전군 전사자의 넋이 잠들어 있는 UN기념공원 내에는 UN참전비와 각국 전사자들의 묘, 아름다운 조각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울속도 자연생태 코스



“서부산의 절경과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울속도 자연생태코스”

암남공원

천혜의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암남공원 이곳에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상쾌한 기분으로 산책할 수 있는 해안산책로와 수심이 깊지 않아 낚시하기 좋은 낚시터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연인들의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다대포해수욕장

부산의 6대 해수욕장의 하나인 다대포해수욕장! 이 곳 갯벌에는 여러 가지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인기가 많다. 또한 다대포해수욕장 주변에는 다대포 객사, 물운대, 윤공단 등 문화유적이 많으며, 세계 최대의 바닥분수로 기네스북에 오른 낙조분수는 관광객들의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다.



아미산전망대

백조 무리가 새하얀 목화송이처럼 점점이 갯벌에 앉아 있는 모습이나 도요새 떼가 하구 사주를 날아오르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천혜의 탐조 장소, 아미산 전망대! 그밖에도 발아래 낙동강하구 모래섬으로 이루어진 삼각주 지형과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현상을 한눈에 관찰 할수 있다.



울속도에코센터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울속도 철새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자연생태를 전시, 교육,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인 울속도 에코센터! 그 밖에도 낙동강 하구에 대한 관광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상영을 하고 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2011 파라다이스호텔이 선사하는 설 선물세트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이 2011 신묘년을 맞이하여 더욱 더 푸짐하고 알찬 구성으로 설 선물세트를 출시한다. 특급호텔 주방장들이 까다로운 안목으로 직접 선별한 품목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이번 설날선물세트는 마무리 포장 하나하나까지 심혈을 기울인 명품 선물세트로 소중한 분에게 보내는 이의 정성 어린 마음과 받는 분의 풍격까지 생각하여 가치 있는 선물이 될 것이다. 실속 있고 저렴한 10만원 이하의 가격대부터 6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 별 30여가지가 준비되어 있다. 청정함이 살아 숨쉬며 고유의 향이 그대로 배어 있는 보길도 활 전복, 범성포 앞바다 최고급 영광굴비, 제주도산 옥돔과 갈치 등 신선하고 품질 좋은 해산물세트, 가정에서 손쉽게 요리하도록 양념소스까지 준비한 한우불갈비 세트와 스테이크세트 등의 육류세트, 수제소시지 세트와 이국적인 맛이 담긴 햄퍼세트 그리고 이태리, 프랑스, 칠레, 호주 등 부드러운 탄닌감과 풍부한 와인의 맛을 특별 느낄 수 있는 세계 각국의 와인 등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맞게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설날선물세트로 고마운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자.



☎ 문의 및 예약 (051)749-2258

부산롯데호텔 페닌슐라



하얀겨울로의 초대

부산롯데호텔 1층 페닌슐라에서는 아름다운 겨울로 고객들을 초대한다. '하얀 겨울로의 초대'라는 타이틀로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행사는 다양한 해초와 상큼한 샐러드가 특징이다. 겨울을 상징하는 색인 'White' 코스는 노르망디식 해물 탕발을 시작으로 앙송이 크림수프, 겨울야채 비니그레트, 양갈비와 바닷가재, 화이트 초콜릿 치즈 케이크와 카페오레가 제공되며(4만 3천원), 바다를 상징하는 'Blue' 코스는 크림을 곁들인 늪은 호박수프와 신선한 계절 샐러드, 자연송이를 곁들이 안심과 광어 스테이크, 복분자 무스와 다크 초콜렛이 제공된다(3만 6천원).



로비라운지 건강 특선죽 행사 진행

부산롯데호텔 1층 로비라운지에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건강 특선죽' 행사를 진행한다. 달콤하고 몸에 좋은 옐로우 푸드 호박으로 만든 호박죽이 15,000원, 깨끗이 씻은 단팥과 쫄면 새알심이 일품인 단팥죽이 15,000원에 선보인다.

올 겨울 따뜻하고 부드러운 건강 죽과 함께 놓치기 쉬운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챙기자. (세금 및 봉사료 별도)



☎ 문의 및 예약 (051)810-6380
www.lottehotelbusan.com | blog.naver.com/blottehotel

부산웨스틴조선호텔

THE WESTIN
CHOSUN
BUSAN

겨울 바다로의 휴식 여행,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윈터 패키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은 2011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윈터 패키지를 선보인다. 크게 2가지 타입으로 선보이는 이번 패키지는 모든 이용 고객에게 2011년 조선호텔 탁상용 달력을 제공한다. 탁상용 달력은 이종섭 작가의 작품으로 채워져 명화를 1년 내내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헬스장, 수영장 무료 이용 및 호텔 내 레스토랑 이용 시 요일에 따라 10~2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타입 이용 시 부르주아 미니 3종 (미니 립글로스, 미니 아이세도, 미니 네일)이 제공되고, 새롭게 단장된 9층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의 조식과 차, 다과, 소프트 드링크를 즐길 수 있는 Happy Hour, 사우나 무료 이용 그리고 24시간 데스크톱과 무료 인터넷 이용 혜택도 제공된다. 가격은 객실 타입 및 요일에 따라 18만원~35만원(세금, 봉사료 별도)으로 선보인다.

특히 오는 1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투숙객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마련되어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천연 화장품 만들기, 그레놀 향초 만들기, 펠트 공예, 조선호텔 바리스타와 함께 하는 커피이야기 등이 마련되며, 클래스에 따라 1만원에서 1만 5천원의 참가비가 있다.



문의 및 예약 (051)749-7001
<http://twcb.echosunhotel.com>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BUSAN
AMBASSADOR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르 부송 국내 피아니스트 공연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의 로비에 위치한 '르부송(Le Bouchon)'에서는 12월 1일부터 국내 피아니스트 이선하씨의 공연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바이올린, 플루트 연주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연말연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선사해 줄 것이다. 공연은 매일 저녁 8시부터 4시간 동안 연주된다. (매주 일요일 제외)

• 장소 : 르부송 • 시간 : 월~토 20:00~00:00 ☎ 문의 및 예약 : (051) 743-1234

특별한 날, 특별한 추억을 위한 크리스마스 패키지

특별한 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연인 또는 가족들은 이번 2010년 노보텔 부산의 크리스마스 패키지를 주목하자. 로맨틱한 추억 만들기를 위한 객실 내 와인 1병과 과일 셋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에스프리 온천사우나 50%할인, 피트니스센터 및 수영장 무료이용, 부산 아쿠아리움 20% 할인, 티피니21 크루즈 15% 할인, 타이전신마사지와 이어테라피, 족욕으로 이루어진 엔타이 테라피 노보텔 코스 할인 쿠폰까지 이 모든 혜택이 제공된다. 다가오는 12월 24일-25일 이틀 동안 선보일 스페셜 크리스마스 패키지 가격은 230,000원부터(세금 및 봉사료 별도)



문의 및 예약 (051)743-1234

코모도호텔

Commodore HOTEL
BUSAN

코모도호텔 겨울 패키지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다가왔다. 코모도호텔에선 연인과 가족을 위한 겨울패키지를 마련하였다. 스탠다드룸이 9만원, 디럭스룸이 10만원에 제공되며 조식 1인 포함, 사우나 수영장 무료입장권, 뷔페 중.석식 20%할인권 이 주어진다. 비즈니스센터는 24시간 무료이용이 가능하며 체크아웃 2시까지 연장 가능하다. 추운겨울 사랑하는 연인 가족과 함께 코모도호텔에서 소중한 추억을 남겨보길 바란다. 본 패키지는 2010년 12월 ~ 2011년 2월까지 진행되어진다.

*상기금액에 세금 및 봉사료 각각 10% 별도 부과

☎ 문의 및 예약 : 051) 461-9701~2
홍보담당 : 김현실 주임 metelinno@commodore.co.kr
Tel. (051) 461.9726 Fax. (051) 461.9739



해운대 그랜드호텔

HAEUNDAE GRAND HOTEL

뷔페 레스토랑 [티파니] '향토음식 페스티벌'

해운대그랜드호텔 1층에 위치한 뷔페 레스토랑 티파니에서 1월, 향토음식 페스티벌을 선보인다. 대한민국 각 지역 고구 음식을 고루 만나 볼 수 있는 이번 페스티벌의 대표 메뉴로는 담양의 떡갈비와 안동의 간고등어, 마산의 아귀찜, 통영의 석화 와 멍게, 황성의 더덕, 여수의 갯김치, 하동의 재첩, 포항의 과메기, 강릉의 황태 해 장국과 제주도의 바지락 칼국수 등이다.

(가격 - 점심 39,000원, 저녁 49,000원 / 세금, 봉사료 포함)



☎ 문의 및 예약 : 뷔페 레스토랑 [티파니] 051) 740-0611

양식당 [퍼스트클럽] '라이브 바닷가재 스파게티니 특선 코스'

해운대그랜드호텔 22층에 위치한 양식당 퍼스트클럽에서 1월, 라이브 바닷가재 스파게티니 특선 코스를 만날 수 있다. 신선한 라이브 바닷가재와 토마토 스파게티니의 만남에 겨울 바다의 낭만이 더해질 이번 코스의 메뉴로는 모팔렐라 치즈와 야채샐러드, 라이브 바닷가재로 맛을 낸 토마토 스파게티니를 맛볼 수 있고, 디저트로는 블루베리 무스와 신선한 과일, 커피 또는 차가 준비되어 있다.

(가격 - 78,000원 / 세금, 봉사료 별도)



☎ 문의 및 예약 : 양식당 [퍼스트클럽] 051) 740-0623

아쿠아펠리스호텔



Hotel Aqua Palace

온천수와 함께 즐기는 사계절 워터파크

부산의 상징 다이아몬드 브릿지(광안대교)와 함께 어우러진 아쿠아펠리스 리조트 호텔은 78개 전 객실이 해변쪽으로 향하고 있는 부산 유일의 온천 호텔입니다. 아쿠아펠리스에서 사용하는 지하 816m에서 뽑아 올린 심층암반 해수, 그 자체가 38°C의 심해수 온천이며 오랫동안 숙성되어 이온화된 물로서 80여종 이상의 몸에 유익한 미네랄이 가득하여 피부와 미용 그리고 건강에 좋은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해수 온천을 사용하는 워터파크 시설은 100m의 바디슬라이더와 파도풀, 유수풀, 비데풀 등이 있으며 수중헬스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수중운동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줍니다. 이외에도 힛트니스 클럽, 요가, 에어로빅룸, 신내골프연습장, 수영장이 있어 종합레저시설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문의 및 예약 (051)790-2345~6

호메르스호텔



겨울바다 패키지

빛과 소리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과 도시의 조화가 있는 광안리해변. 파도 따라 살아 움직이는 바다, 빛, 예술의 열린미술관이 해변을 따라 펼쳐진다. 이곳에 자리잡은 호메르스호텔은 겨울의 안식과 재충전을 위한 겨울바다패키지를 추천하며, 새해의 희망찬 새 설계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자리 한다.

- 플랜 A** 비치디럭스 객실 : 14만원 / 시티비즈니스 : 10만원
 *특전 : 사우나 찜질방 2인 무료제공 / 힛트니스클럽 무료 / 인터넷 무료(노트북 지참)
- 플랜 B** 비치디럭스 객실 : 15만원 / 시티비즈니스 : 11만원
 *특전 : 조식뷔페 2인 무료제공 / 힛트니스클럽 무료 / 인터넷 무료(노트북 지참)
- [공통사항] *상기요금에 10%의 세금과 10%의 봉사료가 가산 됩니다.
 *주말(디럭스: 4만원/ 비즈니스: 2만원) 추가 됩니다.



☎ 문의 및 예약 (051)750-8000

호텔농심

새해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웰빙 체험 행사 2010년 1월 9일, 제7회 신년맞이 짚신 등반대회 개최

호텔 농심에서 매년 초, 새로운 한 해의 액운을 막고 심신의 건강을 다지기 위해 개최하는 '신년맞이 짚신등반대회'가 2011년 1월 9일 개최된다. '짚'은 예부터 우리 조상이 생활전반에 두루 써 왔던 건강 소재로써, 특히 짚으로 만든 복조리나, 금줄 등은 액운을 막아준다고 믿어 왔다. 따라서 짚신을 신고 등반을 하면 건강을 도모함은 물론 한 해의 액운까지 막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짚신등반을 통해 그 동안 길들여져 있었던 등산화나 운동화를 벗고 짚신을 신고 등반을 함으로써, 흙을 밟는 느낌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금정산의 기를 더욱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등반을 하면서 새해 계획을 세우고, 이색 행사인 이번 짚신등반을 통해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을 오르며, 그동안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소홀했던 가족간, 동료간, 친구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짚신등반에 앞서 '새해 소망 적어 새끼줄에 매달기',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등의 다채로운 체험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등반 후에는 시산재를 지냄으로써, 한 해의 건강과 무사산행을 기원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이며, 특별히 제작된 짚신, 점심식사, 허심칭 브로이 맥주권, 온천권, 경품권, 생수 등이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www.hotelnongshim.com에서 참가신청서 작성을 하면된다.(신청순 접수 마감)



☎ 행사문의 (051)550-2100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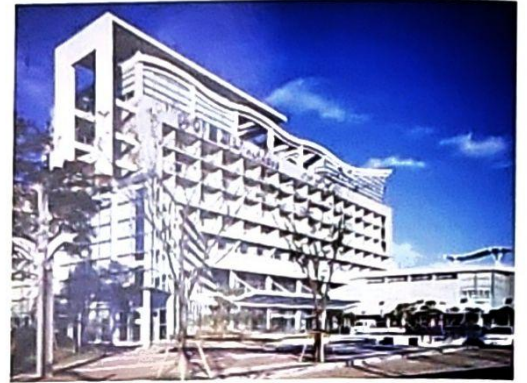
이르피니 YOUTH HOSTEL

앙드레김 추모 자선바자회 개최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지난 8월 12일에 타계한故앙드레김 친선대사가 유적으로 남긴 약 660여벌의 의상으로 12월 26일 ~ 27일간 추모 자선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2004년 개관 이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후원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아르피나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어린이를 돕는 고인의 뜻을 기려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진행되며, 그 판매대금 전액을 전달하는 추모 바자회를 개최한다.

부산을 대표하는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는 지난 5월 5일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초청 행사 등을 적극 후원하였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홍보담당 주임 최진혁 ☎ 문의 및 예약 (051)740-3253

씨클라우드 호텔



겨울 가족사랑 Package

해운대 씨클라우드 호텔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족사랑 패키지"를 겨울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해운대 겨울 바다를 만끽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겨울 가족사랑 패키지"로 선보인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객실과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해운대 주변 관광지들의 할인 쿠폰들과 다음날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침 식사 등 가족 함께 경제적으로 부산 해운대를 즐길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해운대 겨울여행을 통해서 가족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족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

이번 패키지에는 어른 2인 조식과 동반 자녀 2인 무료 조식 제공, 그와 더불어 사전 요청시 침구세트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해운대의 특별한 즐거움을 만끽 할 수 있게 해운대 주변 관광 명소인 부산아쿠아리움 20% 할인, 부산아쿠아리움 3D Rider 30% 할인, 티파니21 크루저 10% 할인, 동백 유람선 15% 할인 혜택을 준다.

가격은 140,000원(슈페리어 하프 오션뷰, 부가세 별도, 주말·공휴일 전일 30,000원 추가)이며, 2010년 12월 01일부터 2011년 02월 28일까지 선보인다. 단, 크리스마스 연휴(12/24~25)와 연말연시(12/31~01/01)은 제외됩니다.



☎ 문의 및 예약 (051)933-1000 <http://www.seacloudhotel.com>

중구, 자갈치 시장~해운대 오가는 유람선 운항 전망

부산 자갈치 시장과 해운대를 오가는 관광유람선이 운항될 전망이다. 중구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갈치 시장~태종대~광안대교~해운대를 잇는 유람선 운항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구는 자갈치~해운대 유람선 해안절경과 일몰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중구는 지난해 실시한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활성화 용역'에 따라 유람선 운항을 핵심으로 하는 장단기 과제 총 43개 사업을 확정, 오는 2014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단기과제에는 광복로에 운영 중인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 노천 카페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용두산 부산타워에는 도달거리가 40km에 달하는 등대형 대형 조명이 설치된다. 보수동 책방골목을 중구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골목 주변에 레스토랑과 갤러리 전통찻집 등을 유지하고 골목에는 아외카페와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중구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다양한 관광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중구가 부산 제1의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가대로 개통따라 KTX-크루즈 연계상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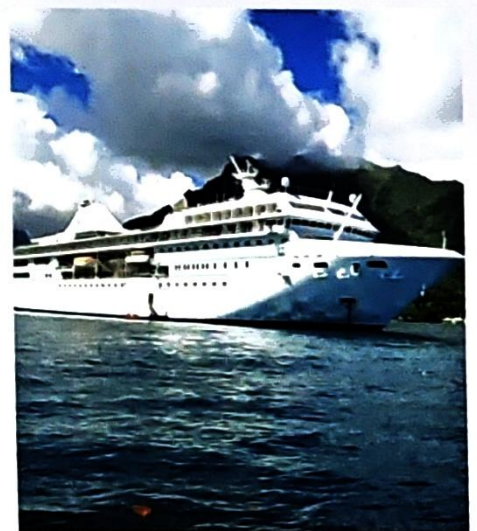
코레일은 거가대로 개통에 따라 KTX-크루즈 연계 관광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에 만들어진 여행상품은 그동안 조선산업 이미지가 강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거제의 관광자원을 개발한 것이다. 수도권과 대전, 대구권에서 출발해 창원까지 운행되는 KTX를 이용해 ▷청정수역 거제 명품 맛기행(굴코스 요리, 돌솥밥정식, 물메기탕, 미남크루즈 선상 베트남 디너식) ▷미남크루즈 야경 관광 ▷거제도 해수온천 ▷산방산 비원 ▷비밀의 정원 ▷포로수용소 ▷영화촬영지(바람의 언덕, 신선대) ▷승마 체험장 등을 즐길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가 관광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지자체와 관광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을 출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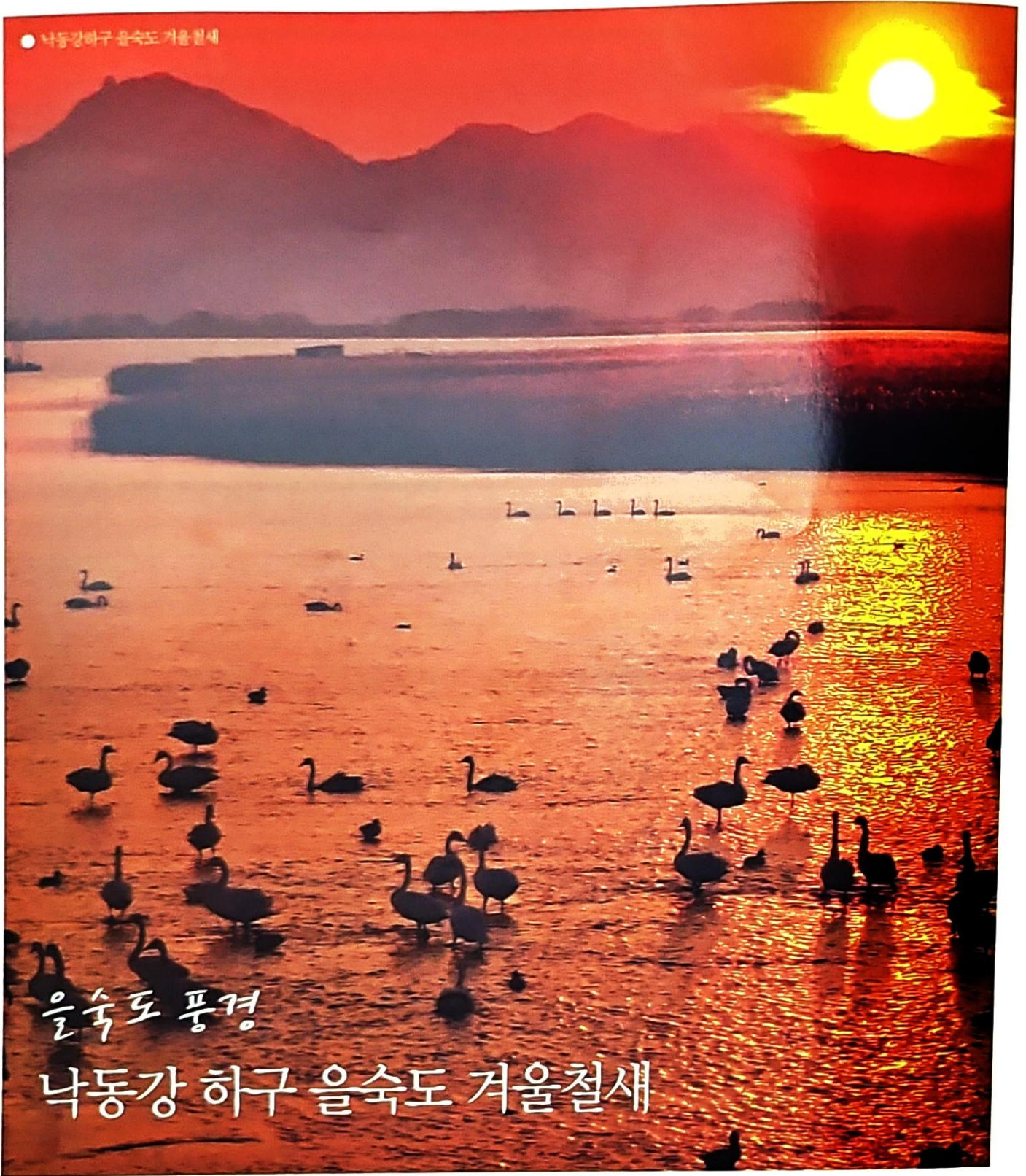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제 크루즈 내년 9월 운항

내년 9월부터 우리나라 선사가 운영하는 첫 국제 크루즈선이 운항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해운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자회사 하모니크루즈(주)가 신청한 크루즈사업권을 허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모니크루즈사는 내년 9월 크루즈선 운항을 목표로 해외 크루즈선사들과 선박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하모니크루즈사는 길이 130m, 폭 32m 크기의 소형크루즈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모니크루즈사는 선박이 확보되는대로 부산항과 인천항, 제주항을 모항으로 운항하면서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결하는 4~6일 일정의 다양한 항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에는 박람회장을 기항하는 한·중·일 크루즈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하모니크루즈사가 운영할 크루즈에는 승무원 200명 외에도 200개의 객실에 500명의 승객이 승선할 수 있다. 또 간단한 술을 마실 수 있는 바와 레스토랑, 노래방은 물론 수영장과 스파·사우나, 조깅 트랙 등도 갖춰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면허 발급은 향후 크루즈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북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국적 크루즈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여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낙동강하구 을숙도 겨울철새



을숙도 풍경

낙동강 하구 을숙도 겨울철새

겨울 철새를 만나는 생태 관광축제 '낙동강 하구! 겨울 철새와 만나다'가 지난달 명지 갯벌 일대에서 열렸다. 을숙도는 동양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올해 175종 16만9000여마리의 철새가 관찰되고 있다.

에코센터는 철새 관찰을 위해 을숙도 남쪽 탐조대에서 을숙도 탐조, 아미산 전망대와 명지갯벌에서 버스 탐조투어, 강 하구 수로탐사와 수로 보트 탐사를 마련했으며 배를 타고 강 하구 일원의 다양한 사주(모래톱)와 철새를 관찰하는 강 하구 사주 둘러보기, 철새 먹이주기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우포늪 풍경

창녕 우포늪 겨울철새

철새 도래지인 경남 창녕 우포늪은 지금까지도 원시생태를 유지하며 백조와 저어새, 오리 등 희귀 철새가 많이 찾는 곳이다. 4개 늪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 자연내륙 습지이며 최근 창녕 우포늪이 문화재청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우포늪은 주변 요소들로 인해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먹이가 풍부해 해마다 겨울이 되면 철새가 몰려들어 장관을 이룬다. 소나무 숲길을 지나서 제방길을 따라가다 보면 갈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장 가까이에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철새를 관찰하고 난 뒤에는 우포늪 주변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자.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갈림>



안영면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부산의 외래 관광객 분산과 겨울 관광상품의 개발

부산은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관광도시로서 4계절 유인력이 존재하는가? 우수한 축제들이 가을에 집중되어 있어 관광목적지로서 매력성도 잃어 가고 있다.

부산의 겨울 관광 상품 개발 사례의 환경은 어떠한가. 부산은 매일 5천명 이상의 외래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다. 그러나 아쉽게도 봄, 여름, 가을 3계절에만 집중되는 관광도시 부산!

해운대, 광안리, 송도 등 해수욕장에는 동절기 관광객 수용시설과 겨울관광 상품의 콘텐츠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겨울 관광 상품 개발 이전에 겨울에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부산의 3계절 집중화 현상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은 휴가기간의 법적 분산의 필요, 계절별 시차제 휴가제의 도입, 부산시내 초, 중, 고, 대학교의 시차제 방학제도 실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지역 유사 문화축제 개최시기의 조정과 겨울 축제개발 등도 먼저 실현 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다음으로 우리 부산의 겨울 관광 상품 개발 전략에 관한 정책의 필요성이다. 첫째, 수백명 수천명의 단체관광객이 1~2시간 반나절을 보낼수 있는 전천후 집단 수용시설로서 관광 인프라 개발이 절실하다. 둘째, 공항, 부두, 역, 터미널, 도심 또는 관광 휴양지간 접근 수단의 확충으로서 모노레일 건설, 시티투어버스 증차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Indoor Event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극장식 식당, 대형 실내 공연장, 대형 맘모스형 상설 민속 공연장 시설이 필요하다. 체험 관광 상품으로는 다도, 도자기, 민속, 김치, 전통주, 혼례, 온돌문화, 부산 갈매길 체험 등도 필요하다. 넷째, 대형 아케이드 조성 확대가 필요하고 Hot Spring 및 Spa 시설의 확충과 겨울 스포츠(해양) 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부산지역 공기업·대기업 종사원, 공무원, 시민들의 휴가관광 패턴이 분산화 되었을 때 시장세분별 마케팅 타깃으로 한 부산 겨울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여섯째, 겨울상품 이용 내외 관광객에게는 특별 할인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곱째, KTX 개통, 거가대교 개통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목표로 한 겨울상품 개발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부산관광은 획일적으로 봄, 여름, 가을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방식에서 부산 관광지의 특성 및 여건에 따른 선(先)부산관광여행 패턴 분산화 정책과 후(後)겨울 관광 상품 개발 등 구체적인 노력이 병행 실시 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화된 관광부산 브랜드의 포지션을 개발해야 한다. 4계절 관광지로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지 될 때 부산이 관광목적지로서, 세계적인 새로운 관광도시로 격상 될 수 있을것이다.

<삽입>



송 세 관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부회장
(주)대왕관광 대표이사

거가대로 개통에 따라 동남권 통합관광 구축할 때

지난 14일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로가 개통됨에 따라 동남권 관광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야 할 때다.

관광산업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지역만의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복수의 지역들이 효율적인 관광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부산은 입지적 조건으로 보아 울산의 산업자원, 경남의 청정해역자원을 좌·우측으로 한 부산의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동남권 통합관광망을 구축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동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광역관광망을 활용, 지역축제의 상호참가 확대, 대형국제행사의 공동유치 개최, 광역 자치단체별 관광안내소의 공동 운영, 공동 관광홍보체제 구축, 일본·중국관련 관광자원 발굴 및 연계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한다.

광역관광망만이 관광활성화가 된다는 신념을 갖고 당초 협약한 대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지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해당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특화상품을 개발하

고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부산 - 해양레포츠 공원조성, 복합해양 박물관 건립, 동부산 국제관광단지 조기조성, 남해안 관광벨트(부산권)사업 조기추진, 전시·컨벤션사업 집중육성

▷울산 - 울산유원지, 울기공원 조성미무리, 긴절곶 등 관광단지화, 울산박물관 건립, 해양·산업·산익을 연계한 체류형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등

▷경남 -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농촌 특산단지 조성,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가속화와 관광프로젝트 개발, 지역전통문화제 육성지원 강화 등인데, 이같이 각 지자체가 지닌 특성을 실려 연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쟁하고 협력해서 총체적인 관광활성화에 전진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단체로 관광정책의 실행 권한이 점진적으로 이전되어 자율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자체와 지역내 민간부문의 역량이 부족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니 관광산업의 정책대상은 관광진흥법상 규정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관광관련 이해 관계자를 폭 넓게 조직화 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주체로 육성하는 진일보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평범한 제언



김종규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대외협력본부장



세계 관광시장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필요한 관광정책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역발상의 변신과 상상력이 끝없이 변화되어야 한다.

굴뚝 없는 황금산업 관광산업이 21세기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관광수도(首都), 관광허브”를 향한 국가와 도시간 각축전이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아.태지역 관광강국인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중동의 두바이가 관광에 명운을 걸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이들 국가의 관광 성공 비결은 뭘까? 관광산업의 기회와 위협, 자신들의 역량과 단점을 끊임없이 파악해 수정하고 활용하는 정책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한다. 관광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프라 건설에 주력했으며,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광정책 입안과 추진력도 뒷심을 받치고 있다. 중요한 관광정책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히 사전의 튼튼한 계획과 사후의 강력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관광시장의 팽창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변 국가의 관광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 주변 경쟁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정책영역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며, 특히 관광산업의 역할

과 기능에 있어서 경쟁과 상생(相生)의 논리가 공유되는 변화의 관광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관광자원과 상품개발 전략에 있어서는 “선(先) 공급, 후(後) 수요 창출”의 도시관광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관광개발의 방식이 과거에는 관광지나 관광단지(테마파크) 중심의 관광개발 방식을 택해왔으나, 최근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반산업과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지역화 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광비즈니스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형태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지역사회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고 사람 사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생활공간을 관광자원화 하는 도시관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소프트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떤 매력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 것이며,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감동을 전할 것인가,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적 체험을 어떻게 전하고 다시 찾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하드웨어의 지속적인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 소프트 경쟁력은 상품, 운영, 정보, 제도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지역이 관광소프트 측면에서 경쟁

“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지역사회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고 사람 사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생활공간을 관광자원화 하는 도시관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력이 있다고 함은 이러한 관광요소가 다른 지역 또는 국가와 비교할 때 비교우위를 가짐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소프트경쟁력 강화를 통해 상품, 운영, 고객에 대해 경쟁우위의 리더십을 보유할 수 있다. 먼저 소프트 상품에는 여행상품, 기념품, 쇼핑, 이벤트, 축제 등 관광상품이 포함된다. 소프트경영에는 지역네트워크 구축, 리더십, 서비스, 홍보마케팅 등 소프트한 상품을 창출하는 아이 디어와 운영능력 등을 의미한다. 소프트정보는 관광관련 정보를 생산하여 잠재 관광객에게 전달하고, 방문한 관광객에게 안내와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프트제도는 금융 및 세제지원, 관련 법규 및 정책 등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적 요소가 포함된다. 결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개발과 경쟁력 확보가 톱니바퀴처럼 지속적으로 윤회하여야 한다.

관광은 마케팅이다. 그곳에 왜 가야하는지, 어떤 독특함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 관광마케팅의 역할이다.

IT를 활용한 도시관광 목적지 마케팅 전략이 고도화 되어야 한다. 관광객의 개성과 선호도에 따라 개별관광이 증가함에 따라 목적지 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목적지 마케팅의 일환 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관광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관광객들이 도시를 관광목적지로 찾는 이유는 많은 볼 것들과 할 것들이 있고, 흥미로우며 매력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도시관광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도시들은 각각 차별되는 매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예로 쇼핑 목적지, 유적 목적지, 컨벤션 목적지, 페스티벌 혹은 스포츠 목적지, 카지노 혹은 위락 목적지, 비즈니스 혹은 무역 목적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도시의 매력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IT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대표적인 성공 도시로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동북아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트너십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관광산업에 있어 국가나 도시간의 자발적인 협력이야말로 새로운 경쟁력이며 핵심 성공 요인이다. UNWTO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이 세계 주요경제 블록으로 등장하면서 관광시장 또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고속성장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역내,외 관광 수요와 공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며 2010년에는 무려 1억 9백만명의 역외 관광객 목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이에 버금가는 역내 관

광객의 해외여행 수요자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므로 동북아권은 세계 최대 잠재 관광시장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동북아권역의 역내,외 관광수요를 국가간에 최대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과 경쟁력이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파트너십 마케팅 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온라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부단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최근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마케팅의 수단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추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마케팅이란 컴퓨터가 제공하는 통신환경인 가상공간에서 고객과의 관계형성 및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말한다.

인터넷의 상업화가 허용되고 웹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은 음성, 화면, 동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멀티미디어로서의 역할도 담당하므로 온라인 홍보매체로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관광수요 잠재력이 풍부한 해외 국가의 케이블 TV매체의 문화와 관광 전문채널, 홈쇼핑 전문채널 방송망을 통한 상업적 마케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개별 관광객 유치증대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간의 교류네트워크 확대와 프렌드리 마케팅(friendly marketing)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

오늘날 국제교류는 날이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교류의 대상국과 형태가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간의 국제교류와 개인의 국제 교류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말한다. 이처럼 국제간의 국제화와 지방화가 합쳐져서 새로운 국제교류의 물결이 생성된 오늘날 체계적이고 다양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선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통망이 편리한 3개 국제 도시간에 트라이앵글 시스템(triangle system)의 삼각형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관광객 교류 확대, IT 활용 공동마케팅, 관광 전문인력 교환, 자매결연 사업 확대, 관광상품 공동개발, 문화관광 이벤트와 스포츠 교류, 학술단체 교류, 크루즈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체제를 운용 한다면 쌍방간에 외국인 유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광활성화는 “관광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필요한 과감한 정책의 변화, 관광자원과 상품개발 전략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 그리고 관광마케팅의 고도화 전략” 이 3개 분야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톱니바퀴 돌아가듯 꾸준히 추진되는 것이 올바른 관광정책이라 생각 한다.

가격도 스마트! 스케줄도 스마트!
에어부산으로 일본여행이 스마트해진다



에어부산, 후쿠오카 · 오사카 운항중! 타이페이 내년취항!

지금까지의 일본 · 타이페이여행은 모두 잊으십시오.
스마트한 항공사 에어부산으로 후쿠오카 · 오사카 · 타이페이여행이 스마트해집니다!
에어부산만의 합리적인 가격에 아시아나항공 공동운항으로 편리한 스케줄까지-
이제 에어부산으로 일본 · 타이페이여행을 가장 스마트하게 즐기세요!

부산	후쿠오카	부산	오사카
*재일 09:40(출발) - 10:30(도착) *재일 17:00(출발) - 17:50(도착)		*재일 09:30(출발) - 10:20(도착) *재일 18:00(출발) - 17:20(도착)	
*재일 11:20(출발) - 12:15(도착) *재일 18:50(출발) - 19:50(도착)		*재일 11:50(출발) - 12:20(도착) *재일 18:10(출발) - 19:40(도착)	

(*) 9시30분 출발은 평일만 운항합니다. * 항공사별 운항 일정은 항공사 홈페이지에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 운항여부가 확인됩니다.





高麗亭

고 려 정

“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한국 전통음식의 맛이 살아있는,
전통 한정식 샤브샤브를 즐길 수 있는 한식전문점 ”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 안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창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강릉, 거제, 김해, 광주, 경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성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청두, 다롄,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산야, 상하이, 선양, 쑤저우, 톈진, 우루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기고시마, 카타큐슈, 쿠마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오사카, 사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가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